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만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은?

BBC, '2022 미 중간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 보도

11월 8일 치러진 중간 선거는 국가의 방향성은 물론 백악관에서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과 집권당의 운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치르면 상하원, 주의회, 주지사 자리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우세가 결정될 뿐이다. 다만,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와 현재 미국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미국 경제가 곤경에 빠졌고 유권자가 범죄와 불법 이민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현 미국 대통령에게 가혹한 시험대가 된다. 게다가 그 결과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확률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BBC는 지난 1일, 이번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를 특별 보도했다(US midterm elections: Why are they so important?).



“나 죽거든 거름으로”...

미 언론, 새로운 장례문화 '퇴비장' & 찬반논쟁

전통적으로 사후 시신 처리 방법은 매장, 화장 두 가지이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는 곧 새로운 선택지(철로 만든 상자 안에서 나무, 꽃 등으로 넣어 퇴비가 되는 매장법)를 제공한다(California just legalized 'human composting'. Not everyone is happy).

지난 9월 말,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당국이 “자연 유기적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 NOR)”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만들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흔히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또는 “테라메이션(terramat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신 처리 방식을 허용하는 5번째 주가 된다.

2019년 워싱턴 주에서 처음 법제화된 이 과정은 지구에서 마지막 행운이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태평양 북서부의 친환경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 매장법이 수 톤의 철, 콘크리트, 그리고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

으며, 화장(火葬) 시 발생하는 열이 수백 파운드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민주당 의원(Cristina Garcia)은 기후 변화의 위협이 새로운 법안 발의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AB-351*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친환경적인 매장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실제 우리 환경에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방식은 우리가 대기에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다.”

(3면으로 계속)



정책 우선순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조 사위위원회 가동 권한을 의미한다. 2년 동안 민주당은 백악관에 대한 조사를 줄였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황금시간대에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파악 정보와 사후 대응을 밝혀내려 했다.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미 하원 장악을 기대하는 공화당에서는 1월 6일 사건의 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 청문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한 이민 정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 준비 중이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까지 손에 넣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과 주요 정부기관 요직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3면으로 계속)

1. 낙태 허용/금지

미국 의회가 재편되면 미국인의 입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낙태권이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호된 낙태권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간 선거 승리 시 전국에 적용할 새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지

지를 공약한 반면, 공화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주 단위로 보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전통적 경합지역에서는 주요 주지사·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낙태 규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낙태 외에도 어느 정책에 힘이 실릴지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누가 주지사가 되는

지에 달렸다. 공화당이 우세하면 이민·종교권·폭력범죄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우세하면 환경·의료·투표권·총기규제의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2. 민주당을 조사할 날만 기다린 공화당

그러나 중간선거의 여파는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장대상, 성가대·목사카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회자·사역자

복음과 성령 세미나

Gospel and the Holy Spirit Seminar for Pastors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

New York by the Holy Spirit!

몇년동안 세계에 전례없던 전염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일어나야 함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귀한 사자 이상목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복음과 성령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뉴욕의 온 성도님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장소로 정중히 초청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Pastor's Seminar

11월 16일(수)
11월 30일(수)
12월 7일(수)
12월 14일(수)

오전 10:00
뉴욕갯세마네교회

평신도회 성회

11월 15-16일(화,수)
11월 29-30일(화,수)
12월 6-7일(화,수)
12월 13-14일(화,수)

오후 7:30
뉴욕갯세마네교회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 성령권퍼런스 주강사
선교사 복음과성령집회 주강사
사모영성세미나 주강사
KAPC, 장로교소속 목사
Zoe Ministries USA 대표
이여리한인장로교회 담임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 이지용 목사)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문의: (516)520-2004

발행인 칼럼 회색의 도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Chichen Itza (치첸이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오래전 찬란한 마야 문명을 꽃 피웠던 도시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안내인의 설명 모두가 귀에 잘 들어 오지 않았지만 피라미드 같이 생긴 높은 태양 신전이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그 신전이 움직이는 뱀의 형상을 보인다고 했다. 지상에서 박수를 칠 때마다 그 꼭대기에서 나는 기괴한 새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상에서 운동 시합을 하여 승리한 팀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 신에게 자랑스런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다. 그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 옛날 지상 최고 문명 도시의 색깔이 나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직적인 회색이었다.

지상 최대의 도시 중 하나, 세계 최고의 건물들이 그 위용을 뽐내고 즐비하게 서 있는 곳, 맨해튼. 미학적 건축물들이 그 위에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을 옷 입고 세상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잘 아는 듯이 한 마디씩 훈수를 두려한다. 그 앞을 말없이 지나거나 그 건물들을 오르내리는 사람마다 표정이 다양하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답게 피부색도 다양하다. 그런데 그 화려한 건물들, 다양한 사람들이 왜 눈에는 모두가 회색으로 보이는가. 어느 날, 그 회색의 거리를 혼자 걷고 걸었다. 놀랍게도 성공을 보여주는 듯한 마천루 밑에 빌딩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빌딩 밑에 쓰러져 있었다. '저들이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것일까. 꿈의 나라 아메리카에 왔는데 무엇이 그들을 실망하게 했으며 꿈을 꺾어 놓았는가.' 그들이 쓰러진 곳은 멋진 건물 아래인데 왜 그들에게 갖든 것은 짙은 그늘인가. 섬머타임이 해제되어서 그런지 회색의 도시가 급히 어두워져 간다.

조용필씨는 이렇게 노래한다. '발 밑에 느껴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저기 저 지쳐버린 하얀 가로등/ 그 어제처럼 그저 그런 가슴으로/ 나 혼자 걷고 있네/ 마음없는 거리 여기 저기/ 회색빌딩 저 너머에/ 푸른 하늘 있을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잎새 하나 있을까/ 종이 배를 접어 띄울/ 냇물 하나 있을까/ 돌아보는 거리에/ 별은 어디 꿈은 어디/ 여기는 회색의 거리여/ 여기는 회색의 거리여' 회색빛 빌딩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을까 애타게 찾고 있다. 회색의 도시는 기만하고 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건물마다 상점마다 '나를 보라, 내게로 들어오라, 당신이 찾던 행복이 여기 있다'고 외친다. 과연 그런가.

회색의 도시들이 빛나려면 태양신을 섬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번쩍이는 네온사인을 밝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안타깝게도 도시들은 예수님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도시의 문밖에서 외로이 서 계신다. 겉은 화려한 회색의 도시에 진실히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도시를 진정으로 충족케 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시를 복음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색깔이 바뀌어야 그와 연관된 색깔도 멋진 배색 관계를 이루려 변화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렴 슬픔—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찬송은 부르는데서 끝날 수 없다. 회색의 도시가 회심할 때까지.

바울의 멘토링 모델, "나를 본받아라!"

CT, 권력 중심 접근법과 달리, 관용과 신뢰 건강한 기독교 멘토링 소개

밀리건 대학의 사역 자원 센터의 센터장으로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베스(Beth Jarvis)목사는 바울의 멘토링을 자신의 경험을 통

하여, 관용과 신뢰로 특징 지어진다(Imitate Me: Paul's Model of Mentorship).

나는 독일에서 6개월 동안 살았고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식료품을 주문하거나 버스를 타는 것은 잘했다. 하지만 농담은 할 수 없었다. 이야기나 소망도 나눌 수 없었다. 나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다른 어학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나는 작은 대학 마을인 튀빙겐에 있는 다른 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즉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느린 독일어로 어학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배치 시험에 초대하기도 했다. 며칠 후 그 학원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그녀는 내 목소리와 억양을 기억했다. 사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각적인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다.

독일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친절했다. 그녀를 지켜 본다면 이 새로운 언어로 기쁨과 온화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모습, 아니 적어도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보았다.

효과적인 멘토링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의도적인 모방 행위를 포함한다.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해 호기심을 키우고, 새로운 언어 기술을 습득하고, 언젠가 딱 맞는 버전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를 참아주는 관계다.

모방 그 이상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일 자리를 찾을 때,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시기 즉 전환기에 멘토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멘토는 멘티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종종 그 사이 혼란기까지 아는 독특한 형태의 친구라 할 수 있다. 멘토링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필요와 요구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우정의 한 형태이다.

교회에서의 멘토링은 새롭게 섬기기 시작한 리더들뿐 아니라 이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멘토링은 종종 자신의 교회 상황 밖의 동료 목회자나 리더들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멘토링은 목회자들에게 독특한 형태의 제자도가 될 수 있으며, 양쪽 참가자 모두 관용의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멘토링이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이 위험은 탁월하고자 하는 욕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이 단순한 암기와 모방으로 이어질 때 온다. 그 접근법을 취하면, 사람들은 그 고유의 표현법 일부를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성과 유연성은 부족할 수 있다.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

비즈니스 세계와 불행하게도, 몇몇 기독교적 맥락에서, 멘토링은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과정이다. 당신의 멘토는 당신을 위해 줄을 당겨주고, 당신을 변호하며, 당신에게 조언을 해 준다. 이러한 "멘토십" 모델에 기초한 일부 교회 승계 계획에는 권력의 승계가 포함된다. 권력이나 영향력은 어떤 것이 전해지고 넘겨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경우 멘토링은 취약성, 진정성, 성장을 장려하는 우정의 관계보다 통제와 야망에 관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런 접근은 특정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멘토링에 대한 이러한 네트워킹 접근은 우리에게 힘을 다르게 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에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심자가를 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주님을 따르라는 요구가 없다.

진정한 멘토링은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멘토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고전은 호머의 오디세이아 할 수 있다. 이 서사시에서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돌봤다. 아테나 여신은 어린 텔레마코스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오래된 가족의 친구로 인간화하여 나타났다.

나는 종종 멘토링 집단과 함께 내가 일하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과 최근에 졸업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사례로 들곤 한다. 이 사례에

서, 나는 멘토란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가지려 할 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멘토는 멘티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는 주로 친구 관계로 온다. 구약성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만약 멘토링이 성공한다면 상호학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두 사람은 우정과 취약성으로 연결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 연결로 인해 둘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함께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한 중견 담임목사가 지역의 한 교회에서 막 사역을 시작한 신입 목사를 멘토링하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와 멘티 둘 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 설교,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하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그들은 최근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각자의 교회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사역자들은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신뢰가 길을 인도하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상력을 다듬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회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멘토링은 실제로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권력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것을 배우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모방도 요구한다.

바울과의 우정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멘토가 되어 준 많은 분들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들은 나에게 진실을 지적하는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역자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 부름, 이 사역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일단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많은 선한 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상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버몬트 한인 침례교회는 텍사스 오렌지 지역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100 마일) 에 위치한 1984년 설립된 교회로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1. 목사 안수후 5년 이상 목회 담임목사 경험이 있으신분
2.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3.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하신분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은?

(1면에서 계속)

3. 조 바이든의 미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첫 2년간의 국민투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이상 부진했다. 여름에는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는 듯 보였지만, 중간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상하원 모두 고전이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 2년 동안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으로도 기후변화·총기 규제·인프라투자·아동빈곤 관련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공화당에 넘어가면 민주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고전한다면 곧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며, 2024년 대선 운동 시즌이 시작되면 바이든 대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재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밀어내고 지명받은 사례는 단 1번뿐이었다.

4. 트럼프의 재출마 여부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조용히 정계를 떠나지 않았다.

2024년 백악관 복귀에 여전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중간선거에 따라 기

반이 탄탄해질 수도 희망이 꺾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후보자 목록에서 물러난 동안, 트럼프가 선택한 수십 명의 후보자가 미국 전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선거에 출마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원로 정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조지아에서 전 미식축구 선수 허셜 위커, 펜실베이니아에서 쇼닥터 메흐메트 오즈, 오하이오에서 포퓰리스트 작가 JD 밴스 상원 후보를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정치 본능이 여전히 예리하고, 트럼프의 보수 정치 브랜드가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가졌음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내세운 '신선한' 후보자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의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와 텍사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모두 11월 재선에 도전한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2024년 공화당 경선 운동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선거 불복자의 선거 출마



심리적 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가톨릭 회의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간 퇴비화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간의 몸을 흙(퇴비)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1. 인체를 나무 조각, 알팔파(자주개자리, 식물), 짚과 함께 강철로 된 용기에 넣는다. 식물 물질과 우리 몸에서 자연적

2022년 중간선거는 작년 1월 6일 미 의회 사당 공격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방 선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막으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질책하기는 커녕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며,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말하는 공화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러한 후보 중 다수는 2024년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각 주에서 진행될 선거 제도를 조금이라도 통제 가능한 자리에 출마했다. 주정부 총무처 장관을 노리는 애리조나주의 마크 핀첸, 네바다주의 짐 머천트 후보가 있고, 펜실베이니아의 더그 마스트리야노 주지사 후보도 있다.

이런 정치인이 선출된다면 접전이 펼쳐진 선거에서 해당 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거 부정 의혹을 근거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우편이나 투표함 등 투표 방법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규정을 만들 수 있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박했으나, 여러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요구를 거부했다.

2년 후, 비슷한 접전이 펼쳐진다면 이런 소동의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

“나 죽거든 거름으로” ...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인간의 유해를 퇴비화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다.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여러 유해로부터 나온 흙(퇴비)을 섞을 수 없고, 그 흙(퇴비)을 팔 수도 없으며, 인간이 소비하는 식량을 재배하는 데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안도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의 유해를 합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콜로라도와 달리 흙의 판매나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재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하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가톨릭교회도 이 과정이 “인간의 몸을 단순히 일회용품으로 취급한다”라고 비판한다. 자연 유기적 환원(NOR)은 가정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퇴비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며 그 과정은 인간이 아닌 가족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법을 인간에게 사용한다면 고인과 정서적, 감정적,

로 발생하는 미생물은 흙으로 변화를 촉진한다.

2. 이후 30일 동안, 자연 분해로 인해 용기의 모든 것이 분해된다.

3. 그 후 용기에서 흙을 들어내고 인공 고관절과 같은 비유기물을 선별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 후, 2~4주 정도 추가로 건조 및 경화 작업을 거친다.

4. 6주에서 8주 후 흙이 완성되면, 가족들은 그것을 나무와 식물에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거나, (환경) 보호·관리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

시론

피할 수 없었을까?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한국 이태원가에서 할로윈 데이를 맞아 그곳을 찾은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156명의 생명이 아사 혹은 질식사할 당하는 아픔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사고를 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양분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권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반면 야권에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그래서 재난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가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정치권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각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석 및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 아픈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과학적인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일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태원역 근처에서 내린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태원거리가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여 사람들의 모임을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숫자에서 중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10시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태원역에 내린 사람들의 숫자는 60,327명이었으며 여기에다 일반 버스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사고가 난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참사가 난 골목의 면적은 5,106평방미터(5만5천평방피트)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들만 기준으로도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1평방피트도 되지 못하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거기다가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아마도 1인당 0.5평방 피트도 채 되지 못한 공간이 주어집니다. 결국 참사 골목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대략 70-80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상태로 사고 현장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사고는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당일 경찰들은 밀려드는 인파를 해산시키려고 시도를 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밀려드는 인파가 해산된 인원보다 몇 배나 더 많았으므로 감당이 불가능하였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 인원 이상의 숫자가 모이지 못하도록 지하철 정차역을 제한하고 노선버스 운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당일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고가 날 것이 너무도 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통제기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일을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된 지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맡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단일한 생각이 빛어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 여기며 가볍게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위험천만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더 진지하게 더 조심스럽게 내게 주어진 주님의 부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hankschoi@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I-20 혹은 J-1 Visa
2. 직장이나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무거운 인생 짐을 가볍게 만드는 길

G. Campbell Morgan은 다
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게
으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
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다는 것은 첫째 명령하에 움직
이는 것이고, 둘째, 다음에 내
려질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셋째, 명령이 주
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
고 기다리는 능력을 말한다. 기
역할 가치가 있는 모든 성취는
근면의 피로 열매치고 실망의
상처로 상처를 입는다. 그만두
고, 도망치고, 빠져나가고, 숨는
행동과 같은 선택 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것들은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
고 계산하는 것을 연기할 뿐입
니다. 처질이 잘 표현했습니다.
“전쟁은 후퇴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포기할 생각을 하십
니까? 그만둘 가능성을 고려하
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쉽다’는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는
명예를 언급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28-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
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전도사로서 교역자 생
활을 하기 시작한 때가 1980년
10월부터니까 42년 이상을 교
역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42년 생활 속에서 배운 것
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가장 쉽고 무엇인가를 이루
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
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모
든 것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한
것은 힘만 들었지 결국 아무 별
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
히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생활도
어려웠고, 교회도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돕
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
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마지막 순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하라는 대로 해

보고 망하지는 각오로 주는 일
을 시작했을 때 교회의 재정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
분에 저의 삶도 바뀌어 풍성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
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
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진정한 쉬운 것이라는 것이
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쉽
이 필요하면 순종하라고 말
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참다운 쉬을 얻기 위해선 예
수님이 지라고 한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짐이
가볍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 공동 대표)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
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
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 년에 세 번 절
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
니다. 바로 무교절(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수장절(조막
절)입니다.(출 23:14-17)
그런데 현대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
고 추수 감사절을 중요 절기
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
데 추수 감사절은 구약의 수
장절과 연관이 됩니다. 구약
시대 때 농사를 지어 얻은 곡
식을 저장해 두고 한 주간 동
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께 절기를 지켜왔던 배경을
알고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
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농사를 지은
후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자
기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
쳐 주셨던 인디언들을 초청해
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런 신앙적인 배경에서 추수
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청교도 이주자들의
수장이었던 존록 브래드 포드
가 1623년에 추수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
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절기로 지켜 내려오
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사회
와 달라진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축

복해 주신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하
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성경 저자들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
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에게 섬성한 생각을 하고 계
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
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면 관계로 일일이 다 열거
할 수는 없지만 시편을 묵상
해 보면 그런 사실을 확실하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26절로 기
록된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
께 감사 하라”는 말씀이 스물
여섯 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
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인 살전 5:18 에도 “범사에

행하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가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게 된 나병 환자 열 사람이 “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
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
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나 계곡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생각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 받은 이후 예수님
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

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
가 없느냐”(눅 17:17-18)고
반문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섬
섭함을 들어내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진 세
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리
어왕”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가운데 리어왕이 나
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진 노
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
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딸
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한 리

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
활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
해를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
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
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와 같
은 아픔과 상처를 직접 받아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실에도 감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범사
란 말은 모든 조건을 포함하
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수 있을 것입니다.
3. 작은 일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 제목을 주십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
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교
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
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조차 필요 없는 신비로운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비취 주실 것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할 제목을 주신다는 평범
한 말씀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
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드
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감사 거리를 주실 것입
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눈으
로 사물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감
사한 일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움직
이며 거동할 수 있는 것도 감
사한 일입니다. 내 손발로 운전
대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일
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
한 일입니다. 몸을 쉴 수 있는 거
처가 있는 것도 가족들이 곁
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
다. 마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요 아주 사소한 일들 같아 보
이지만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
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갇아먹는 일입
니다.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는 분명 더 큰 감사 제목을 주
실 것입니다.
revjmsong18@gmail.com

받아 드림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바울의 멘토링 모델...

(2면에서 계속)
우리 각자는 우리를 부르신 더
큰 맥락인 교회의 사명에 대한
공통점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스타일과 고유한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리더들
사이의 우정과 상호 격려라는 주
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 바울
은 사람들을 좋아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이 그들을 꾸짖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울이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
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심을 말
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
음을 잊곤 한다. 우리는 이 사실
을 특히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
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가까
웠다. 그들은 바울에게 음식과
현금을 보냈고, 그를 위해 기도
하고 염려했다. 그것에 대한 담
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에
관한 편지를 썼다. 그들에게 감
사의 글을 쓰기 전에 바울은 “형
제들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

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
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3:17, 개역개정)고
말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고,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는
같은 권유를 다른 바울 서신서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린도전
서 4:16; 11:1, 데살로니가전서
1:6)
이 권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만해 보이거나 자아도취적으
로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유명한
목사들의 입에서 이 초대들을 들을
때 그렇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
한 유명한인이 되기에 적합한 목사
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통제력
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권유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
자신처럼 우리도 달리 생각하
라는 초청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함을 본받으라는 초
청이다.
‘바울과 1세기 편지 쓰기’, ‘바
울, 편지 저술가’, ‘고대 편지 저
술가 바울’ 등의 저술이 포함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주요한 신
약성경 학자들의 책에서, 그들은
구전 문화에서 편지가 어떻게 구

성되고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토
론을 벌여 왔다. 우리는 편지를
쓰는 것을 혼자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내에서 편
지를 썼다. 편지 쓰기 과정에는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공연하듯 편지를 전달
하는 모방 행위가 수반되었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은 바울
의 버릇과 여조를 배웠다. 그들
은 특정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의 바다 랭귀지를 흉내 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바울을
모방했다.
실비아 키이즈마트와 브라이
언 월시는 그들의 새로운 주석
(‘Romans Disarmed’)에서 어떻
게 이런 모방 행위가 기독교 공
동체 내에서 반복될 수 있었는지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다. 그들은 로마 교회 신자들이
부역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상상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공연하듯 보여주고, 그것
에 대해 상술하고,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
을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키
이즈마트와 월시는 우리는 이 편지

어왕은 혼자 이런 독백을 중
얼거립니다. “감사 할 줄 모르
는 자식을 둔 것은 마치 독사
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
을 가지는 것 같구나” 작가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
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
리가 선택할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
령입니다.
2. 받아 드림의 감사가 있
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보든 우리
의 의지나 생각과 전혀 다
른 일들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사고
를 당할 수도 있고 잘 알고 믿

는 누구나 감사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
운 일이나 마음에 부담이 되
는 일에도 그것을 받아 드리
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
리가 해야 할 참된 감사의 모
습입니다. 받아 드린다는 것
은 마음 문을 열고 수용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
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
기 때문입니다”(롬 8:28)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자
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
접 실현했습니다.(고후 11:23-
28) 이런 자세로 받아들임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
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는 자신의 고유한 강조로 사람들
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할 수 있도
록 배울 것이다.
좋은 멘토는 결코 자신을 본받
는 것을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는
다. 궁극적으로, 좋은 기독교 멘
토는 멘티가 그 대가로 그리스도
의 큰 그림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지 나아가도록 신뢰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밝
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
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빌
1:3-5)
멘토링의 중심 요소는 협업과
신뢰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이것
은 관용을 낳는 신뢰이다. 관용
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정이 계
속될 수 있음을 언제나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의 무한한
여정을 볼 수 있고, 익숙하면서
도 새로운 기쁨의 소리를 내는
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교회들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멘토링 관
계는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신뢰
하는 능력이라는 같은 종류의 변
혁적 힘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
이 기독교 멘토링이다.
바울처럼 이 힘은 권력을 포기
하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의 견
고한 사고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
는 능력이며, 우리가 무엇을 잃
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통제
하려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부
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래서 다
른 이들이 행할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마도 몇몇
멘토들의 기쁨에 대한 매너리즘
중 일부는 여전히 모방 속에 남
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남학생과 함께 탈의실 사용을 거부한 여학생에게 내려진 가혹한 역사별적인 처벌! 거기에 맞서는 용감한 여학생의 법적 호소 - 기도해주세요!

여자 고등학생이 탈의실에서 남학생과 함께 갈아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의 중고등학생 딸, 손녀, 또는 여자 조카가 학교 라커룸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생물학적 남학생이 "난 여자야" 하면서 들어와서, 딸 앞에서 웃을 흘릴뻔한 벗고 갈아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딸/손녀/여자 조카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들의 보호자로 어떤 action을 취하시겠습니까?

한 예로, 최근에 버몬트 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버몬트 주 버링턴에 있는 WCAX 언론에 따르면 랜돌프 고등학교 배구팀의 생물학적 남학생이 이번 시즌 시합 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여학생 전용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분출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인 여학생 편에서 해결책을 주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역차별한 적이 됐습니다.

로컬 스테이션과 뉴스들에 따르면, 학부모들과 운동 선수들이 학교에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미 들어가 있던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의 황당스런 "인권"주장을 옹호하며 가해자의 편에 섰습니다.

학교 측은, 여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는 커녕 오히려, 버몬트 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학생들 가족들 전체에 발송하며 법을 따르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메일에 적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법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사생활 보호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의 딸들이 남성과 함께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편한 여학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딸의 문제이고 여학생인 당신 딸이 새로운 라커룸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그것도 당신 딸에게 달려 있다." 라고 적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남자이자 수영선수인 Lia Thomas가 여성 선수 라커룸을 사용하



겠다고 했다가 여학생들이 문제를 제시하였더니 학교 측의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시대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찾으세요!"라고 답했다.

버몬트주 교육부는 WCAX를 통해 교육청 위원회의 정책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려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호도(우선순위)가 포함돼야 하며, 트랜스젠더 학생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특별히 트랜스젠더 학생의 사회적 통합 극대화; 트랜스젠더 학생 낙인 최소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나이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외 트랜스젠더 관련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학교의 그 누구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성정체성과 다른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이들의 교육정책을 정리하자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에서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 남학생이 아직도 성적으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즉, 남학생이 여학생 탈의실에서 강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Randolph 고등학교의 배구팀 선수인 Blake Allen 여학생의 요청은 오로지 여학생 전용 탈의실/라커룸에 남학생들이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는 그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학생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문제화 삼았습니다.

여자 배구선수인 Blake Allen과 그외 다른 10여명의 여학생들이 학교에 건의를 한 후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한 다음과 같은 답이었습니다.

"그러게... 블레이크. 근데 어떻게 하니.. 지금 세상이 변할걸. 이해가 안되면, 학교 측의 정책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지 마렴. 지금은 2022년이야. 요즘은 네가 갖고있는 상식은 통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가장 프라이버시가 높아야 할 여학생 탈의실(락커룸) 논쟁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수많은 주들 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 학부모는 지역 공무원이 남학생과 함께 탈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 학교를 피해 집에 가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건에 대해 Round Rock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비상식적이고 아이들에게 의학적으로도 매우 해로운 트랜스젠더 정책들이 학교마다 들어가 있는 걸까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정체성 정치를 통해 성교육혁명을 일으키지 어느새 10년이 넘는 지금,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위험한 트랜스젠더 정책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 독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는 접할 만큼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어린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역차별적인 상황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HR5 (LGBTQ++ Equality Act, 평등법안)에 고스란히 잘 적혀있으며, 그 외에도 그동안 트랜스젠더 인권확장(공립학교 교육 포함)을 위한 여러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건들은 Deep Blue States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와싱턴 등등의 주들 안에는 다른 주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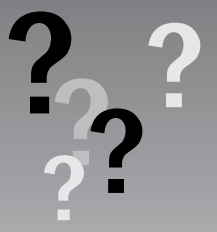
단지, Deep Blue States 주정부의 정책 아래 있는 공립학교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 "정상화 Normalize" 된 곳들이 훨씬 많으며 "문화"로 취급을 해버리기에 무디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깨어나 일어나는 학부모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에 소망도 있습니다.

기도제목:

이런 비과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추진, 확장시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진심으로 되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생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목회는 더욱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학에서 대두되는 목회의 화두는 무엇인지요?

- 실비치에서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화두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화두는 교회 건강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저절로 장수할 수 있듯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저절로 성장은 따라온다고 봅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푸시는 오늘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을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4가지를 목회에 적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Flag)입니다. 무슨 일이든 깃발을 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깃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단체의 비전과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비전은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제자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열방의 복음화라는 세계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성도들을 제자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 성장보다 우선 교회 건강 건강한 교회 저절로 교회 성장

둘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Creed)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건전한 바른 교리에 바탕해서 올바른 신조를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바른 신학과 성경관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학공부를 할때 열심히 조직신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유럽교회가 교인들이 줄어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목회자가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영국국교회가 도덕관에 있어 동성애자를 사제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교인들은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셋째가 부를 수 있는 노래(song)입니다. 군대를 가면 군가가 있습니다. 군가는 군인으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어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큰 동기부여를 하게 합니다. 사람을 끌려면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음악에는 찬양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 운동을 연구해 보면 군중을 사로잡는 찬양이 늘 있었습니다. 예배와 찬양도 내 스타일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다양한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 필요합니다.

넷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leader)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믿고 따를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전 고려대 교수였던 김충렬 교수는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싸움만 하는 정치 9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른 가정에서 정직하게 자라나 제대로 공부한 학식과 인격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학식이 없으면 전하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없고 둘째 인격이 부족하면 신뢰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셋째 경륜이 없으면 지혜롭게 국가를 이끌어 갈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윌리엄 피킨슨 이란 목회자는 "목회소명"이란 책에서 좋은 법률가는 10사람중에서 한사람 나올까 말까하고 좋은 의사는 20사람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지만 좋은 목회자는 1,000사람중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고결한 인격과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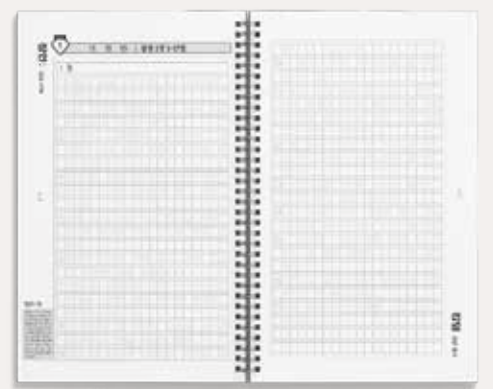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

목회단상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복음 메시지에 마음 문이 열리는 때”

오랫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청중들이 가장 귀 기울여 듣는 시... 간은 하관식에서 관을 붙들고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죽음이... 라는 엄숙한 현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지해했습니다. 죽음이... 라는 엄숙한 현장 앞에서는 내가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달리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불타는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앞뒤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할 일입니다. 꽤 규모 있는 미국의 연합 감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미국인과 한국인 회중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시고 현재는 어느 특정 교단의 목회자들 교육 및 영어 통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은퇴한 어느 70대 중반의 목사님과 지난주에 잠깐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백인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 못하고 헤어져서 매우 아쉬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후 더욱 절실히 느끼신 것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한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TEE, 풍요로운 삶 훈련 과정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정말 멋진 노년의 세월을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부담감 없이 보내는 세월은 어쩌면 낭비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울러 로버트 맥체인... 가까운 친구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혔던 성경학자 앤드류 보나의 3가지 생활 원칙을 소개해 드립니다.

- 1. 주님께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2. 무릎(기도)을 꿇기 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
3.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사전투표 '역대 최고' ... 막판 결집 양당, 초 접전 양상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중간선거 사전투표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방송은 6일(현지시간) 전국 사전투표 인원이 4134만명(미주리 캔터키 미시시피 등 사전투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지역 제외)을 넘어선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선거일 이전 현장 투표를 합한 수치다. '미국선거프로젝트'(USEP) 데이터상으로도 사전투표는 2018년 전체 기록(3910만 명)을 넘어섰다.



NBC는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 중 45%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지지자는 35%였고, 나머지 20%는 무소속 유권자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64세 28%, 40~49세 11%, 30~39세 8%, 29세 이하 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3%로 남성(45%)보다 많았다.

사전투표 중 우편투표는 2232만 표를 집계했다. 5000만명 이상이 우편투표를 요청한 만큼 전체 사전투표 수치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접전 지역은 사전투표 양상이 전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사전투표 유권자는 108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70%가 민주당 지지자인 것으로 NBC뉴스는 집계했다. 사전투표에 나선 공화당(21%)과 무소속(9%) 유권자는 민주당 유권자의 절반도 채 안 됐다.

조지아주는 25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민주당 지지자(49%)와 공화당 지지자(41%) 차이가 8% 포인트에 불과했다. 네바다주도 60만 명가량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39%)와 공화당 지지자(37%) 차이는 2% 포인트였다.

한편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705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은 각각 48%, 50%였다. 반면 NBC방송의 지난 3~5일 등록 유권자 786명 조사에서는 민주당 승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8%로 공화당 선호(47%)보다 조금 높았다.

양당은 각각 '민주주의 위협'과 '경제 위기'를 선거 캠페인 전면에 꺼내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 패트릭 말로니 민주당 하원 선거운동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릭 스콧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번 선거는 '바이트의제'에 대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범죄율, 국경 개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세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나가서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애미 유세에서 "조국의 파괴를 멈추고 아메리칸 드림을 구하고 싶다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감원 한파, 트위터 이어 메타도 수천명 자른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특수가 끝나면서 미

국 실리콘밸리의 테크기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트위터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한 데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직원 수천명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9일 메타가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9월 말 기준 메타의 총직원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8만7314명이다. 이 중 수천명이 해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타 직원들에게는 이번 주 불필요한 여행을 취소하라는 공지가 내려졌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처럼 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렸다. 2020~2021년에는 약 2만 7000명을 신규 고용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만5344명을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팬데믹 특수가 끝나가면서 최근 실적은 연일 내림세다. 올해 3분기 메타의 순이익은 43억9000만 달러(6조1591억원)로 1년 전 92억 달러(12조9076억원)보다 50% 넘게 감소했다. 메타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부문이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메타버스의 부진한 성적과 중국 앱 틱톡(TikTok)과 경쟁 심화가 하락의 원인이다. 메타 주가는 올해 들어 70% 하락했다.

저커버그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부 팀은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것이나 다른 대부분 팀은 내년에 걸쳐 규모가 유지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쇼크는 실리콘밸리 테크기업 전체에 들이닥쳤다. 우버와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리프트는 지난 7월 6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683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13%다. 같은 날 아마존은 불확실한 경제와 지난 몇 년간 고용 호황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도 최근 "연구·개발 이외의 직무는 더 채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2023년까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기존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지난달 1000명 감원을 완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인수된 트위터는 최근 전체 직원의 50%를 해고했다. 감원이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필수 인력까지 해고되자 회사가 일부 직원에게 '해고는 실수였으니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복귀한 직원들은 해고 대상이 아닌데 직원들의 착오로 감원 통보를 받았거나 머스크가 구상해온 새 기능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으로 뒤늦게 파악됐다"고 전했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머스크에 대한 악평이 넘쳐나고 있다. 한 트위터 직원은 "인정이 없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직장 문화가 완벽하고 빠르게 파괴됐다"고 비판했으며 다른 직원은 "트위터가 혼돈에 빠졌다. 머스크의 자존심은 화성만한데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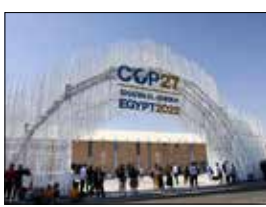
트위터는 한국의 트위터코리아 임직원에게도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감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직원 30여명 중 50%를 해고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코리아 임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람들은 시차를 두고 차례로 이메일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마침내 개인 이

메일을 받았을 때 (해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대외홍보 업무를 맡는 커뮤니케이션팀은 완전히 해체됐다. 커뮤니케이션팀 직원은 모두 트위터를 떠나게 됐다. 트위터코리아는 대외홍보 관련 문의를 커뮤니케이션팀이 아닌 공식 메일 로만 받을 계획이다.

개도국 기후 피해 보상받나... COP27 주목

관측 사상 최근 8년간 가장 기온이 높았을 정도로 지구 온난화 피해가 심각해진 가운데 6일(현지시간) 개막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 방안이 합의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의제는 바로 손실과 피해"라며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당사자가 보상하는 게 상식이지만, 법적·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이를 적용하는 데는 매우 큰 장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통칭한다. 해수면 상승과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생물 다양성 상실 등이 포함된다.

사이먼 스틸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COP27 개막식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다는 사실은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타협안이 나올" 좋은 징조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놓겠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보상 명목은 아니었다.

NYT는 "배려가 아닌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개도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선이나 구제, 원조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 선진국의 산업화 대가를 파키스탄 국민이 치르고 있다"는 빌랄 부투 자르디리 파키스탄 외무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의 지구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해 1~8위를 차지할 전망이다"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했다. WMO는 이날 공개한 '2022 글로벌 기후 보고서' 초안에서 올해 9월 말까지의 관측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 발표된다.

보고서는 산업화 직전인 1850~1990년까지의 지구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편차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온도 추이를 집계했다. 올해 지구 평균 온도는 역대 관측 기록상 5위 혹은 6위에 해당하는 편차 1.15도로 예상된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파리기후협약 목표가 달성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면서 "적어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간 빙하가 녹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델리, 초교 휴교령...초미세먼지 기준 50배 이상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세계 최악 수준의 겨울철 대기오염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초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했다.

4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르빈드 케지리वाल 델리주총리는 이날 "대기 오염이 악화하고 있어 5일부터 초등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질이 개선될 때까지 중학생의 학교 야외 활동도 금지된다"며 "필요하다면 훌짜제 등교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부 학교들은 이미 야외 체육 수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가인 빌렌두 자는 트위터에 "공기질지수(AQI) 500 이상에서 숨을 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어린이는 이미 폐질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델리의 대기질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전날 뉴델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750µg/m³ 수준까지 육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권고 기준이 15 µg/m³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의 50배까지 대기질이 악화한 것이다.

뉴델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편자브주 등 북부 지역 추수 잔여물 소각과 축제 관련 폭죽연기,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으로 인한 독성물질 확산, 저감 장치 없는 발전소·공장 및 노후차량 매연 등이 겹치면서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린다.

부펜더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트위터에 "누가 델리를 가스실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야다브 장관은 야당 보통사람당(AAP)이 집권한 편자브주의 논발 연소가 많이 증가했고 역시 AAP가 집권 중인 델리주가 대기오염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60만명 숨진 에티오피아 내전 종식 합의

2년 동안 계속됐던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 해방전선(TPLF)이 2일(현지시간) 내전 종식에 합의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아프리카연합(AU) 중재로 일주일 넘는 협상을 이어오다 '연구적인'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TPLF는 30일 이내에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티그라이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티그라이 내전은 2020년 11월 4일 시작돼 2년간 이어졌다. 이 기간 적게는 38만명, 많게는 60만명이 기아와 질병 부상 등으로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내전은 아비야머드 에티오피아 총리의 정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전국 지방선거를 연기하자 TPLF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TPLF가 정부 시설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군대를 파견했으며, TPLF는 이에 격렬히 저항했다. 이웃국가인 에리트레아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국제적 양상으로 확대됐다.

AU 중재단 대표인 올레세운 오바산조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협상 성사 뒤 기자들과 만나 "분쟁의 두 당사자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으며 조율된 무장해제와 적대행위 중단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머드 총리는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가 강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타체우 레다 TPLF 대변인은 "주민 고통을 고려해 양보하게 됐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에리트레아와 다른 지역의 정부 동맹군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협정 준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8. 황계신

황계신은 1868년 7월 3일에 한국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보다 약 3달 일찍 태어난 고마리아와 결혼한 후 4자녀를 데리고 하와이 노동 이민 첫 배인 개리에 올라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가 1909년에는 오아후섬 에와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에와 한인감리교회

황계신은 1868년 7월 3일에 한국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보다 약 3달 일찍 태어난 고마리아와 결혼한 후 4자녀를 데리고 하와이 노동 이민 첫 배인 개리에 올라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가 1909년에는 오아후섬 에와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1909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4회 하와이 선교 연회가 개최되었다. 그해 감독은 찰스 W. 스미스 박사였고, 감리사는 존 W. 와드만이였다. 그리고 그해 한국인 총무는 홍치범이였고, 한국인으로 준회원 (집사 목사) 과정에 있던 사역자는 위의 홍치범 이외에도 민찬호, 이형C, 김우수, 신반석, 최진택, 김이제, 그리고 동맹이인인 김우수가 더 있었다. 스미스 감독은 오승운을 오아후섬의 에와 지역과 와이아나에 지역의 순회 목사로 파송하면서 황계신을 오아후섬의 에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그달에 보고된 바로는 에와 한인감리교회에는 등록된 세례 교인은 24명이었고, 등록된 학습 교인은 38명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와 성인이 세례받은 수가 9명으로 동수였다. 주일학교에는 7명의 교직원에 65명이 등록했고 평균 60명이 출석했다. 1년간 25달러를 헌금하였는데 해외선교비로 3달러, 해외선교 주일학교비로 1달러, 내지선교비로 7달러, 내지선교 주일학교비로 3달러, 교회 일반 교육비로 1달러, 어린이 교육 기금으로 2달러, 교회 주일학교비로 4달러, 흑인보조회비로 1달러, 미국성경공회비로 1달러, 부인내지선교비로 2달러였다. 예배당은 시가가 1,500달러였다.

1910년 3월에 개최한 제5회 하와이 선교 연회에서 에드윈 H. 휴즈 감독은 황계신을 오아후섬의 와이리우아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이달에 이KC를 오아후섬의 와이리우아지역 뿐만 아니라 목골니아지역과 가후구지역과 아이아지역까지 담당하는 순회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1910년 5월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와이리우아 지역의 올드 밀 캠프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했다. 이기홍(41세), 이성목(36세), 이수하(43세), 김기림(34세), 이채안(31세), 이병원(27세), 김상안(28세), 이태경(27세), 유봉천(40세), 이오완(32세), 김부일(37세), 김원실(28세), 양인성(29세), 최원경(30세), 조채선(31세), 홍수잔나(63세), 황윤명(42세), 이준경(34세), 신백관(30세), 김새곤(30세), 김철산(49세), 이순완(49세), 이은창(34세), 이종임(43세), 남창식(42세), 이천완(31세), 박광익(35세), 송성화 956세), 조수홍

(35세), 이용보(49세), 노상복(35세), 김상운(30세), 임태연(26세), 신지봉(28세), 신상오(17세), 임장식(62세), 김덕완(36세), 유준관(40세), 채성주(29세), 황인완(31세), 박경일(35세)은 총각이거나 홀아비였다. 김용식(46세)과 부인 아그네스(39세)와 송순, 유홍 가정, 김성진(30세)과 부인 에바(31세)와 윤학 가정, 안경문(41세)과 부인 파우실라(41세)와 푸르다, 실라, 도럴 가정, 최진흥(49세)와 부인 매틸다(41세)와 한홍, 우홍, 호분, 하분 가정, 이종열(34세)과 부인 도랄(27세)과 수우 가정, 홍 호(26세)와 아내 미수(19세) 가정, 김사완(46세)과 부인 보배(24세)와 수연 가정, 박경호(49세)와 부인 고순(48세)과 범구, 궁덕, 바덕 가정, 김순근(42세)과 아내 매리(36세)와 완성, 천성, 호성, 수성, 오성 가정이 있었다.

황계신이 파송 받은 당시 와이리우아 지역과 다른 세 지역의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수가 20명에 등록한 학습 교인수는 30명이었고, 등록하지 않았지만 성인 세례수는 5명이었고, 어린이 세례수는 4명이였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는데 3명의 교직원에 32명이 등록했고 평균 23명이 출석했다. 엠피스 청년회에는 고등부에 1명이 등록했고, 중등부에 10명이 등록했다. 6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다. 해외선교부에 20달러, 주일학교위원회에 1달러, 흑인보조회에 1달러를 헌금하여 총 12달러를 상회비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1911년 1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세는 작년에 비해 턱없이 격감되었는데 노동 조건에 따른 한인의 이동 때문으로 보인다. 와이리우아 지역을 포함한 네 지역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수는 19명이었고, 등록된 학습 교인수는 14명이였으며, 등록하지 않았으

치범 목사를 순회 목사로 파송하여 위의 교회뿐만 아니라 목골니아 지역도 맡겼다. 그런데 1912년의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1년간의 목회 결과를 볼 수 없어 안타깝다. 그뿐만 아니라 1913년 이후 1915년까지의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황계신의 파송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191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1회 하와이 선교 연회를 소집한 윌슨 S. 루이스 감독은 황계신을 오아후섬 목골니아 한인감리교회에 지방 전도사로 파송했다. 그래서 1915년 이전에 두세 번 권사로 파송하여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여 하와이 선교 연회가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 1915년에는 그를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가 목골니아로 파송될 때 안취택이 권사로 파송되었고, 홍치범 목사를 파송할 때 처럼 와이리우아 지역에 파송된 조연택 목사가 목골니아 지역까지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달에 보고된 보고서에는 목골니아 지역에 관한 보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의 교세를 가늠할 수 없다.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13회 하와이 선교 연회를 사회한 에드나 W. 레오나르드 감독에 의해 황계신은 최완S와 함께 오아후섬의 목골니아에 지방 전도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1917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보아 1917년에도 이곳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 같다. 2년 전에 와이리우아 지역에 파송된 조연택 목사가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 같고, 김일걸과 남덕도와 안채덕이 1918년 연회에서 권사로 파송되었다. 그런데 1918년 연회에 접수된 교세 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1922년)

이 준회원으로 안수받았다. 이날 방화중이 오아후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은 가운데 황계신은 안원규, 남세운 그리고 정원명과 함께 오아후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접수된 보고서에는 권사 파송자가 없었으나 1920년 연회에 참석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였던 한재명, 이태성, 김주호 그리고 정운선이 1919년 연회가 파송한 권사로 보인다.

1914년 말 이후 하와이 선교 연회 플라이 감리사와 한인여자학원 교장이었던 이승만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가운데 하와이 국민회에서 3,000여 달러에 매입한 땅을 한인여자학원 설립에 기증하는 과정에서 물의와 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1918년 7월에 이승만과 그를 따르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 중 일마가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해 12월에 한인기독교회가 되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분열되었다. 이듬해인 1919년에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방화중 목사가 갑자기 사임하여 황사용 목사를 급속히 파송하는 등 교회 회복이 절실했다. 1920년 연회에 보고한 대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급격하게 줄었다. 등록된 성인 세례수는 3명, 등록된 어린이 세례수는 8명, 어린이 세례자 중 입교인이 2명, 등록된 학습 교인이 약간 명, 지난 1년 받은 학습 교인수가 5명이어서 전체 교인수가 30명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는 5명의 교직원이 있었고 60명이 등록하였고, 그리고 엠피스 청년회 고등부에 8명이, 중등부에 22명이 등록하였으므로 장래에 희망이 있었다.

1920년 이후 연회록에는 지방 전도사와 권사로 파송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황계신의 파송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기록된 목사 명단에도 황계신의 이름이 없다. 그러나 황계신의 사역 기간이 1909년부터 적어도 1920년까지 11년간 권사로 지방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1934년에 동지회에 가입한 이후 그의 발자취는 공적인 한인 교계나 교포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 고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0년이 되던 1963년 11월 14일에 황계신은 호놀룰루에서 향년 95세에 향년하의 부름을 받고 부인이 안장된 인근 오아후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 1909년 3월 오아후섬 에와 한인감리교회 권사 파송
- 1910년 3월 오아후섬 와이리우아 한인감리교회 권사 파송
- 1916년 2월 오아후섬 목골니아 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 파송
- 1919년 3월 오아후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 파송

나 출석하는 세례 교인수는 한 명이였다. 그런데 주일 학교에는 3명의 교직원이 있었고, 15명이 등록했다. 엠피스 청년회에는 고등부에 1명이 등록했고, 중등부에 8명이 등록하여 자녀를 둔 교인은 이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당 수리비로 62달러를 지출했다. 내지 선교부에 20달러, 주일학교위원회에 1달러, 흑인 보조회에 1달러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 1달러를 헌금하여 총 23달러를 상회비로 지출하여 두 배 정도로 헌금했다.

1911년 1월에 모인 제6회 하와이 선교 연회는 황계신을 오아후섬의 와이리우아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다시 파송했다. 그런데 이달에 위의 교회 목사로 황

황에는 2년 전처럼 목골니아 지역에 대한 보고가 없어 교회 교세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지역에 목사 한 명, 지방 전도사 1명 그리고 권사 3명을 파송할 정도로 한인 노동자가 많았고, 교인들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14회 하와이 선교 연회가 1919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였다. 감독이었던 매트 S. 휴즈 박사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총무 O.H. 위커 목사가 출석을 불렀다. 정회원 (장로 목사) 한인 목사는 조연택, 홍치범, 홍한식, 김이제, 이관목, 이선일, 임준호가 있었고, 준회원 (집사 목사) 한인 목사는 김재성 그리고 송헌주가 있었으며, 준회원 과정 한인 목사는 안시흥과 박기흥이 있

었다. 이날 한명교와 박종수와 방화중

황에는 2년 전처럼 목골니아 지역에 대한 보고가 없어 교회 교세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지역에 목사 한 명, 지방 전도사 1명 그리고 권사 3명을 파송할 정도로 한인 노동자가 많았고, 교인들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흥),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61-9199, www.mckn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크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9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평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 예배: 오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찬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nnit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선교교수 2. 임야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5: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ajara MEX(멕시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말씀과 땅 (21) - 디나의 사건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디나의 "강간"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세는 세심한 단어 선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연루된 인물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필 수 있게 했다.

우선 디나를 보자.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창 34:1) "야곱의 딸"이었다.(3, 19절)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디나는 아직 결혼 이전인 "소녀(na' ará)"였고(창 34:3) 아울러 나이가 어린 "소녀(yaldá)"였다.(4절)

디나는 가나안의 "딸들"의 삶과 차림새를 궁금해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창 34:1) 여기서 '본다'는 표현은 '궁금하고 원해서 본다'는 뜻으로, 같은 용례가 아가서에 있다 -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아 6:11)

어린 디나는 성안에 사는 가나안 소녀들의 삶이 보고 싶어 당시 관례를 깨고 홀로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렇게 "보러" 나간 디나를 세겜이 "보고" 강간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핵심이다.(창 34:2)

이제 가해자 세겜을 보자. 세겜은 "그 땅의 주장"인 "하물의 아들"이었다(창 34:2; 개역개정본은 세겜이 주장이었다고 잘못 옮기고 있다). 아울러 그를 "소년(na' ar)"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19절) 그 역시 아직 결혼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간자 치고는 그가 디나에 대해 가진 마음이 진솔되고 간절하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창 34:4) 이 말에서 읽히듯 그가 디나를 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저자도 이 면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창

34:3) 원문을 통해 살피자면,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듯(창 2:24), 그의 '혼'이 디나와 '합하여(dabaq)' 사랑하고 디나의 마음에 말하기를 (dibbēr 'al-lēb) 마치 보아스가 루에게 하듯(룻 2:13) 했다는 것이다.

세겜의 관점에서 그의 사랑은 진실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창 34:11-12)

만약 세겜이 단순한 강간자라면 다음과 같은 고대근동 법을 따라 의무를 질 것이다: 미혼의 남자가 미혼의 소녀를 "억제해 붙잡고 강간했을 때"

다. 이렇게 볼 때 세겜-디나의 사건은 당시 고대근동 법보다는 오히려 후에 모세를 통해 제정될 이스라엘의 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출 22: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현대 법적 관점에서 여전히 강간 사건으로 봐야 할 이유는 세겜 스스로가 말했듯이 디나는 어린 "소녀(yaldá)"였기 때문이다.(창 34:4) 비록 합의적 성관계였다 할지라도 디나가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소녀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를 법정 강간(statutory rape)이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다. 고대근동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 전에

맞기고는 속수무책이다.(창 34:5) 만약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으면 달랐을까? 이 사건에 누가 격동한 것은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들이었고(창 34:7), 칼을 들고 하물 일가를 죽여(25절) 가나안으로부터 디나를 되찾아온 것은 결국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였음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26절)

이런 야곱이기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창 34:30)라며 시므온과 레위의 피흘림을 책망하는 야곱의 말이 무척 없이 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주민"은 아직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도구로 사용될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 그 일들이 치러질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과 함께 그 땅에서 기거해야 할 때다. 그러기에 세겜을 진멸하고자 한 시므온과 레위의 피흘림은 잘못이라는 것이 족장 야곱의 관점의 한 면이다.

이제 저자가 더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살펴보자. 저자는 세겜이 디나에 대해 가진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누누이 인정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결과가 '더럽힘'이었다는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내려 준다.(창 34:5, 13, 27) 모세는 이 단어를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정하다(tāme)'로 자주 번역되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 디나의 사건이 설사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디나로 하여금 제의적 '정결'을 상실케 했기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도가 가나안에 사는 동안 '합의'의 상황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럴수록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정결'을 기뻐하며 누려야 할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는 "소녀의 세배 가치의 은혜를 그 아버지에게 줄 것이요 그녀를 강간한 자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요, 그는 그녀를 버리지 못한다."(중기 앗수르 MAL 토판A, 55문단)

그런데 세겜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디나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를 강간자로 무작정 몰아가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욱되게 하고'(창 34:2) - 이를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다: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동침하고 그녀를 욱되게 했다'. 이 사건과 흔히 비교되는 다말의 강간 사건의 경우 암몬은 다말을 '힘으로 눌러 욱되이고 그녀와 동침했다'(히브리어 직역, 삼하 13:14). 프라이머-켄스키(T. Frymer-Kensky)가 관찰했듯이 이 두 사건 사이에 차이는 암몬-다말의 경우 '힘으로 눌러 욱보임'이 전개 과정임에 반해 세겜-디나의 경우 감압적 요소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욕보임'이 그 과정이 아닌 결과라는 점이다. 즉, 합의적 성관계였을 수 있다는 것이

는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있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오직 창녀 뿐이었다. 그래서 세겜-디나의 경우, 만약 합의적 성관계임이 맞았다면 이는 디나가 "창녀"로 비쳐지는 것이며 이를 유도한('데려간') 세겜을 죽인 것은 옳은 처사였다는 것이 시므온과 레위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창 34:31)

결국 시므온과 레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한 강간 사건이 아닌, 야곱의 딸을 창녀로 전락시킨 자와 그 가문에 대한 전쟁이었고, 그들은 '계략'("속여", 창 34:13), '기습'(25절), '전멸'(25절), '노략'(27-29절) 등 전형적인 전쟁의 형태로 이 사건을 끌고 갔다.

이 사건 전체에서 야곱은 그 어떤 대책을 내놓지도, 또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치 사라를 빼앗기고 속수무책이었던 아브라함(창 12, 20)처럼, 또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내 준 뺨한 이삭처럼(창 26), 야곱은 딸 디나를 가나안 사람에게 빼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1. 시니어의 성경적 정체성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해, 이미 백세 시대를 넘어 이백세 시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듯 노인, 어르신, 고령자에 대한 명칭도 '시니어(Senior)', '실버(Silver)',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니어(Senior)'라는 명칭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의 역할이 단순히 '나이 든'에서 '실력자'의 개념으로 상향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전통적인 모습을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국가와 사회환경에 따라 '노인'의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학자들 도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에 대한 역할과 지침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별히 성경이 제시하는 '시니어의 성경적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각 교회가 시니어의 성경적 정체성에 맞게 '시니어 목회'를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를 향한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마지막 '다음세대 사역'인 '시니어 목회'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니어의 8가지 성경적 정체성

첫째, 시니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태복음 7장 17절) 시니어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둘째, 시니어는 삼급입니다. 시니어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맞이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잠언 10장 27절)

셋째, 시니어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욥기 12장 12절)

넷째, 시니어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장 7절) 라고 강조합니다. 시니어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다섯째, 시니어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장 18절) 의 고백이 우리 시니어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시니어에게 달렸습니다.

여섯째, 시니어는 풍성히 계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의 열매가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시편 92편 14절)

일곱째, 시니어는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레위기 19장 32절)

여덟째, 시니어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 6절) 시니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녀입니다. 주 앞에 서기 위해 자녀로서 충실히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같이 시니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전령자, 지혜자,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려 온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진리를 전수하는 위대한 유산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세대가 이 땅의 시니어 그룹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후진으로서 시니어 그룹들에게 예수를 갖출 때,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미래를 모두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423-9700, Fax: (702) 257-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대민족찬양회: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대민족찬양회: 매주(목)오후 4:00-7: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0288,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ตัน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찬양: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pl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Fax: (213) 703-9961 5502 Old Behner Rd. Crestview, FL 32536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442-0288, Fax: (215) 442-9037 706 Wilmer Rd. Hershman,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안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elkum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느헤미야의 마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 가지지만 늘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덩달아서 기

뻐하게 되고,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할로인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156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게 되는 불행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 미국과는 다른 할로인 문화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추겨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지고 활성화 되어서 가고 있었거나, 아니면 상업적 목적을 얻기 위한 상술에 의해서 계획되고 번성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귀신 놀이인 할로인 파티로 유혹할 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민교회들은 할로인 데이가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오게 하여 세상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들로 사랑과 초코렛을 받으러 다니는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 주면서 할로인 데이의 무의미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들은 세상과의 영적 문화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순위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31%), 건강하게 사는 것(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0.4%),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7.6%),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6.5%),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3.7%),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0.9%),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0.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0.1)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센터에서 전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38%), 직업(25%), 물질적 행복(19%)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제 1순위는 물질적 행복(19%) 이었고, 뒤 이

서 건강(17%), 가족(16%), 일 반적 만족감(12%), 사회와 자유(5%)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대답한 비율은 1%였습니다. 1%!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19.6%인 한국에서 나온 응답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삶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가치에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syurchurch@gmail.com



구호물품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겨울나기를 도와주세요!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겨울나기가 막막한 실정”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마자 지난 3월 초순부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월드쉐어USA는 얼마 전 현지동역자인 우크라이나 키르치 목사의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받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 강태광 대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을 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라고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강태광 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지원하고 유럽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 구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목사는 우크라이나 군종목사 제도를

도입한 키르치 목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종목사 활동을 지원하고, 전자자 가족 지원(전쟁과부담기)과 전쟁 고아돕기를 지속해 왔다. 그런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겨울이 오면서 현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강목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광활한 국토를 고려할 때 국지전이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전쟁이다. 특히 러시아를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를 대표하여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가 내부의 반전운동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이 무너졌고 겨울나기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상황을 전해 왔다.

월드쉐어에 관한 문의는 kangtg1207@gmail.com 또는 323-578-7933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쉐어USA)



시전 생명언어교실 4~5기 수료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전’ 주관 생명언어교실 4~5기 수료예배

“입술의 거룩이 거룩의 마지막 단계”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에서 가을학기 개강한 생명언어교실 4기와 5기가 지난 8주간의 과정을 마치며 지난 4일(금) 수료예배를 드렸다.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으로 7명, 한국에서 줌으로 수강한 4명과 함께 1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수강생의 한 자택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는 “경우에 합당한 말(잠언 25:11)이란 제목으로 “성숙이란 적합성에 대한 감각이 체화되는 것이다. 잠언은 언어의 대학원 과정인데 적합성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윗은 구원이 준수했다. 그는 묵상하는 자였다. 삶에는 묵상한 말씀의 깊이만큼 일상의 말이 정화되고 때에 적합한 구원이 나오게 된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예수님의 잉태소식에 아멘하며 하나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다. 이제 8주간의 과정을 마쳤으니 더욱 묵상하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삶속에 체화해 가라”고 당부했다.

이러 생명언어를 배운 후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의 간증들로,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이 이뤄지는 간증들을 나누었다.

이들은 8주간 지도한 이민미 전도사는 “생명언어교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에 스스로도 놀란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사람의 습관화된 언어체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입술을 고쳐주시기 원하신다. 입술의 거룩이 거룩의 마지막 단계이다. 반복되는 대화 패턴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언어진단 받고 일반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함께 성경속 대화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10가지 어법을 배우는데 일상언어의 치

유와 회복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앞으로의 바램은 수료하시는 한분 한분이 생명언어 사역자로 교회들과 공동체와 가정에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수료식은 정종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시전 생명언어교실 6기는 2023년 봄학기에 개강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818)590-646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문화선교원 시전)



세계선교교회 장학금 마련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세계선교교회, 장학금 마련위한 바자회 성료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겨울나기가 막막한 실정”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5일(토) 교회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갈비구이, 핫도그, 단감, 육포, 밀반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와 옷, 생활용품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이번 바자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방문했고, 많은 성도들이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은혜로운 잔치가 되었다. 또한, 세계선교교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11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독교전도회연합회 11월 정기 조찬기도회

“교회와 기관추천으로 50명 선정, 장학금 지급키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5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11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조찬기도회는 서문준 이사의 대표 기도회 이어 우영화 목사(동부 사랑의교회 담임)가 ‘참된 행복(시 1:1-6)’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우영화 목사는 설교에서 유명 방송인인 요리사인 앤서니 보데인의 자살 뉴스를 언급하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했던 그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려 했듯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행복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OC 지역사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

고, 11월 8일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이 배출되기를 합심으로 기도 한 뒤 임재선 장로의 기도로 마무리 했다. 이어 신용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50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협력해 주신 많은 후원자들, 연합회 임원, 이사들에게 감사한

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장학생 선발에 있어 교회와의 연합을 강조하며, 교회와 기관의 추천으로 40명, 연합회 임원, 이사들의 추천 10명으로 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 대학원생이며 한 가정에 한 명, 이전에 2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낯선 오지와 선교기간이 오래된 선교사 자녀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이번 골프대회 명예대회장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의 인도로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아침 8시에 애너하임에 있는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정기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블레싱하우스 오픈 감사예배에서 정찬수 목사가 박경서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빛내리교회 블레싱 하우스 오픈감사예배

“블레싱하우스는 만남의 집, 기도의 집 될 것”

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가 블레싱 하우스(Blessing House, 8994 Tour Dr. #240, McKinney TX 75070) 오픈 감사예배를 지난 10월29일 오전 6시30분에 가졌다. 빛내리교회는 맥키니 지역으로 교회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쉬운 장소로 블레싱 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연합과 부흥을 도모하게 된다. 정찬수 목사는 “블레싱 하우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집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서 “블레싱 하우스가 항상 열려있고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길 소망한다. 기도의 집이 되고 내리(빛내리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제하는 만남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예배당이 없는 작은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며 지역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말씀의 집이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정찬수 목사는 이날 감사예배에서 ‘손잡고 함께 가세(막 2:1-12)’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본문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한 정 목사는 “정말 기적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빛내리교회의 복쪽 캠퍼스 시대를 열며 블레싱 하우스와 예배당 건축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유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블레싱 하우스를 제공한 박경서 장로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회와 신학포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2022 추계 목회와 신학포럼이 총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주관으로 12월 13일(화)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린다. "Bryan Chapell 박사의 설교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강사는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 박사이다. 브라이언 박사는 전 커버넌트신학교(세인트루이스) 총장이며, Unlimited Grace Media(BryanChapell.com) 대표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Christ Centered Preaching)>와 <Holiness by Grace> 등의 저서를 냈다. 12월 13일(화) 오후 1~5시(미 동부시간) 진행되며, 2번의 90분 강의와 3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참여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문의: 박성일 목사 spark@jubileekapc.org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3회 정기연주회

성탄절을 맞이하여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목 이만호 목사, 회장 이진아 목사, 단장 박영희 권사)은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12월 11일(주일) 오후5시에 선교를 위한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가진다.

▲문의: 회장 이진아 목사 718-406-7577, 단장 박영희 권사 631-766-6086

세상의빛교회 심령부흥회 개최

뉴저지 펠팩에 위치한 세상의빛교회(담임 민경수 목사)는 12월 2일(금) 오후 8시 ~ 4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7시에 이윤재 목사(버지니아비치천마음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이라는 주제로 심령부흥회를 개최한다.

▲문의: 세상의빛교회 201-482-8299, www.lowccnj.org

프라미스교회(퀸즈성전) 찬양팀원 모집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퀸즈성전에서 찬양팀원을 모집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며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분으로 전공자 및 찬양사역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분야: 키보드 (First & Second), Bass, E.Guitar, Drum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11시, 금요일 저녁 8시

▲문의: 201-888-4004, chamboyl@gmail.com

뉴저지연합교회 부목사 청빙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부목사(Full-time or 3/4)를 청빙한다. 자격: 정규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 재학 또는 졸업자, 감리교 background, 40세 이하, 취업에 걸림 사유가 없는 분 (필요시 종교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학위 증명서 및 인신 증명서, 그 외 인터뷰 후 추가 요청 예정 제출처: kccnjoffice@gmail.com (이메일로만 서류 제출 가능)

▲문의: 고한승 담임목사 hanseungkoh@gmail.com, 201-816-1284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찬양사역자, 고등부 목회자 청빙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한여권 찬양 사역 교역자(Full or Part time)와 고등부 담당 교역자(Full or Part time)를 청빙한다.

사역: 1)고등부 목회자: 고등부(9th- 12th Grade)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권 사역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한 자, 2) 찬양 사역자: 찬양사역 및 예배 협력, 예배와 찬양에 대한 소명과 경향이 있는 자 자격: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및 사역 가능한 자, 정규신학대학원 (M.Div) 재학 혹은 졸업자(고등부 목회자)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사진 혹은 가족 사진 1장 포함), 자기소개서 (소개, 신앙 간증, 사역 비전), 신앙 고백서

▲문의 및 서류제출: david2lord@hotmail.com

CTS 뉴욕방송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오직 예수 복음 전하라"

CTS 뉴욕방송(이사장 김종훈 목사)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및 2023 미주 목회 인사이드 세미나가 11월 2일(수)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CTS 뉴욕방송은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기독교 TV 방송을 시작해 CTS 기독교TV의 뉴욕지사를 2007년 설립했고,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문정웅 목사(뉴저지갈보리교회)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박태열 목사(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이신재(테너)와 임예지(소프라노)가 특별찬양 후,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딤후 2:1-2)"라는 제목으로 "CTS가 지난 15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마치 목회자가 강단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며 "한 영혼의 기록성, 이민자의 희망인 교회를 세우는 일, 다음



CTS 뉴욕방송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대를 이어가는 미디어 선교, 순수 복음을 담은 방송을 하겠다는 이 귀한 방송의 목적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방송국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장동신 목사(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갑덕규 미주 총괄본부장이 홍보영상과 방송소개를 했으며 강경철 회장(CTS기독교TV)과 김종훈 이사장(CTS 뉴욕방송 후원이사회)의 감사 인사가 있었다. 또한 유동윤 선교사(United Brethren Mission 대표, 터키), 김재한 선교사(GMI 선교회, 파나마),

강형민 선교사(한인세계선교

(홍현숙 기자)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찬양예배를 뉴저지베다니교회에서 드리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찬양예배 개최

예배와 찬양을 통한 화합 이루길 원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가 주최하고 KUMC 전국과 동북부 평신도연합회(전국 안성주 장로, 동북부 최관호 장로)가 주관한 찬양예배가 11월 6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찬양예배에는 남부뉴저지 KUMC(박태열 목사), 뉴욕만 백성교회(이종범 목사),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 베다니교회(백승린 목사),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 후러시제일교회(김정호 목사) 등 동북부 지역 6교회의 찬양대가 참여했으며, 미전역에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동북부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관호 장로는 "그동안 교단분리 문제를 앞두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찬양예배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평신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는 "주변의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연합감리교회의 분열로 한인교회의 생존과 미래를 염려하는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찬양예배를 통해 시편찬송과 찬양, 말씀과 기도가 진행됐다. 박태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베다니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다. 후러시제일교회 김성태 장로는 "연합감리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개회 기도를 했다.

고한승 목사는 "찬송하리로

다(고린도후서 1: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너무 보기 좋고 복된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며 그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그것도 찬양예배로 모인 기쁨을 나누었다. 고 목사는 "찬양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누가 서로 잘하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의 초점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라"고 설교했다. 한교총 총무인 김일영 목사는 광고를 통해 "한교총은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교회 대표기관으로 복음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인교회들이 성서적인 전통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라며 "여기에 모인 교회들은 교단 탈퇴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교회"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강조했다. 이어 "아직 과정을 밟지 못하고 가혹한 절차 때문에 연회와 싸우고 있는 서부, 중남부, 동남부 지역 한인교회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소개했다. 한편 남부뉴저지연합감리교회 교인총회에서 1부 차이로 교단탈퇴가 부결되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백승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필라교협 제34회기 정기총회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필라교협 제43회기 정기총회 개최

회장 채왕규 목사, 부회장 임수병 목사 선출

대필라델피아지역한인교회협의회(이하 필라교협)는 제43회기 정기총회를 11월 6일 주일 오후 5시 뉴비전교회(채왕규 목사)에서 열었다. 필라교협은 60여개의 회원교회가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회장 채왕규 목사(뉴비전교회)와 부회장 임수병 목사(필라델피아사람의

교회)를 선출했다. 기타 임원은 평신도 부회장 최승찬 장로(영생장로교회), 총무 송석현 목사(열린문교회), 서기 유재완 목사(한인필라델피아교회), 회계 황준호 장로(백스카운장로교회) 등이다.

(기사제공: 아멘넷)

로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인데, 현재 뉴욕시 근역인 소폭 카운티에 2명 스테이아일랜드에 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있고, 5명이 업스테이트에 있다.

둘째, 다카 드리머들을 돕는 비영리기관인 'United We Dream' 단체에서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위해 300,000명 온라인 서명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보고는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통해 다카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연대해 나간다. 현재 230,503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이고 아래 링크에서 여러분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기자회견과 편지 발송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상/하원의원들이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150여 이 보고 회원교회들과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넷째,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와 연대 및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타민족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보고 회원교회 기도회와 청원운동,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 진행 상황을 이

보고와 시민참여센터(KACE)가 공동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뉴스레터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보고 이메일과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보고는 "우리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다(고후 3:3). 소외되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서류 미비자들과 다카 드리머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임크로 쓴 편지도 연방 의원들에게 발송하지만, 영으로 쓰여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촉구하는 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 계속 기도와 노력을 정진하겠다"라며 참여와 동참을 호소했다.

(기사제공: 아멘넷)



(김재상 기자)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를 위한 편지 보내기 및 선거 참여 캠페인

총 200명에게 통과 촉구 편지발송, 다카 드리머 및 서류미비자구제 내용 포함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고)와 시민참여센터(KACE)는 11월 1일(화) 오전 11시에 후러시제일교회에서 "이민개혁안 의회 통과를 위한 편지 보내기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명 전원과 4개 주 하원의원(NY, NJ, CA, IL) 109명 등 총 209명의 의원들에게 1일 오후에 발송했다. 하원의원 4개 주를 선정한 이유는 이보고 회원교회가 조직되고 유권자로 등록된 주들, 그래서 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이 고려해야만 하는 지역을 선별했기 때문이다. 이보고는 기자회견 이후로도 추

진해 나갈 5가지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카 드리머들을 비롯한 서류 미비자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앞으로 실천할 5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11월 8일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이민개혁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선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편지 발송이후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의 의원들을 방문하여 이민개혁법안과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 뉴욕주의 경우 27명 연방의원 중에서 8명이 이민개혁법안을 적극적으로

소망소사이어티 제6차 차드 비전트립 파송예배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 장로)는 제6차 차드 비전 트립 파송예배를 3일(목)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컨퍼런스룸에서 가졌다. 유 분자 이사장은 “모든 일이 감사할 뿐이다”라며 “모든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일을 찾아서 시작한 것이 죽음준비 사역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굿네이버스를 만나게 하시고 우물파기 사역도 시작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하는 죽음의 국가가 소망을 통해 시작된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통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자 감사한 일”이라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파송예배는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소망중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황인철 목사(홀리턴장로



소망소사이어티 제6차 차드 비전트립 파송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회 담임)가 ‘세상의 빛(마 4:12-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인철 목사는 “갈릴리 지방은 내용을 갖 없는 지방이었다. 편할 날 없는 어두운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성지가 되었다”며 “아프리카 차드 역시 황무지였지만 생명을 살리는 우물이 530개가 지어졌으며 8개 학교

가 세워져 꿈나무들이 길러지고 있고 식량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소망소사이어티에서 담당하고



연세추수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연세추수감사예배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예배”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회장 고계홍)와 남가주연세동문 목회자회(회장 이영선 목사) 주최 연세추수감사예배가 6일(주일) 오후 4시 부에나파교회(담임 김성남 목사)에서 열렸다. 이영선 목사는 “연목회는 연세 동문들을 섬기는 모임”이라며 “팬데믹 이후 교회들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된다. 지금은 모임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연목회가 앞으로 더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연세 동문들과 연목회 회원들 사역과 사업위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석 목사(연목회 서기) 인도로 열린 예배는 황선철 장로(연목회 이사장)가 기도했으며 남가주연세콰이어가 특송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연대교육대학원 73년 졸업)가 ‘감사의 축복(눅 17:1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길 목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하지만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예배이다. 예배참석보다 더 큰 감

사 의 표현은 없다”며 “감사는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의식이다. 감사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성서적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부르는 천상의 합창이다”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장근석 목사(20대 연목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권영대 목사 사회로 연세인의 감사찬양 시간을 가졌다. 연목회 사모합창단, 김순필 동문의 바이올린 연주, 고남철 목사의 트럼펫 연주가 있었으며 연음회(연세대 남가주 유대 동문회) 회원들의 공연시간을 가졌다. 연음회에서는 소프라노 이영주, 박윤경, 바리톤 권영대, 연세콰이어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함께부른 뒤 정요한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성화장로교회 가을음악회에서 테너 백동휘 씨가 찬양하고 있다

성화장로교회 가을음악회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가을음악회를 5일(토) 오후 5시 성동진 내과와 센터메디컬 그룹 주최로 개최했다. 성동진 원장 사회로 열린 가을음악회는 테너 백동휘와 연악 4중주(바이올린: 황여주, 조지혜, 비올라: 권이현, 첼로: 정성희)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는 축복하노라, 시편 23편, 거룩한 성 등 찬양곡, Una furtiva lagrima, La donna e mobile 등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꽃 피는 날 첫사랑 연 등 가곡을 불렀다. 이동진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음악이다. 음악을 통해, 선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와 연주를 통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진 원장은 “교회와 병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 음악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캠코랄 갈라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캠코랄 갈라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이에게 행복과 은혜 넘치기를”

캠코랄(단장 김용태, 지휘 이수정) 갈라콘서트가 ‘We Sing Again’이라는 주제로 에나하임 크리스천 개혁교회에서 6일(주일) 오후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김용태 단장은 “캠코랄이 지난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함께 모여 연습하며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했다”며 “오늘 연주회는 내년 4월에 있을 정기 연주회에 앞서 저희 캠코랄에 도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들을 모시고 갈라 콘서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오늘 연주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감동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

다”고 말했다. 나삼진 목사(아프리카 미래재단 사무총장) 기도로 시작된 갈라콘서트는 캠코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등 찬양곡과 ‘시간에 기대어’,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등 대중가요를 불렀다. 이날 소프라노 여유경, 이주희, 메조소프라노 조이 김, 임지은, 플루티스트 연가은, 테너 오인석, 바리톤 신하민, 첼리스트 신예희가 찬조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아름답게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하나님 지으신 높은 세계’를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김성남 목사(부에나파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덴버 풍성한교회 설립예배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되길”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담임 이두화 목사, (주)헬로쉽교회)가 지난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두화 목사는 교회 설립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난 두 달 동안 감작스럽게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순간에 박성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자리에 이전할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풍성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예배장으로 사용되었던 큰사랑교회는 박성호 목사의 정년퇴임으로 인해 자리가 비워질 예정이었다. 박성호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계획이 있다. 앞으로

풍성한 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길 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지훈 목사(덴버 교역자회 회장)는 “개척된 교회가 여러 교회 사이 의미가 더 많다. 하나님의 설립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풍성한 교회로 나아가길 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덴버 풍성한교회 설립예배에서 교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기사판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감사예배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와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연합예배가 오는 20일(주일) 오후 2시 30분 좋은마을교회 제2캠퍼스(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에서 열린다. 본 연합예배에서 민승기 목사 은퇴 및 MKW 순회선교사 임명 축하식도 있을 예정이다. ▲ 문의: (714)646-9259

오렌지한인교회 창립감사 및 임직예배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창립 4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13일(주일) 오후 2시에 갖는다. ▲ 문의: (714)871-8320

고 박재훈 목사 추모 음악회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박재훈 목사 1주기 추모 음악회가 13일(주일) 오후 6시 부에나파크의 감사한인교회(6959 Knott Ave)에서 열린다. 음악회엔 남가주 동신교회(지휘 권영대)와 세리토스 선교회(지휘 김연주) 성가대, LAKMA 합창단(지휘 윤임상), KAM 코랄(지휘 이수정),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행사를 주관하는 실비치 한인합창단(단장 이성남, 지휘 백경환)이 출연한다. 소프라노 이영주, 김미경씨와 테너 전승철, 바리톤 권상욱씨는 독창을 선보인다. 고 박 목사의 딸인 소프라노 박순혜씨도 특별 출연한다. ▲ 문의: (213)210-3283

정신 건강 세미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정신 건강 세미나가 13일(주일) 오후 2시에 친교실(Family Room)에서 “회복탄력성/중사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다. 강사는 최영화 LA 정신건강국 프로모터이다. ▲ 문의: 이효수 장로 (323)770-6622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중고등부 가을부흥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중고등부 가을부흥회가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한사무엘 목사(은혜한인교회)이며 일정은 11일과 12일 오후 6시30분, 13일 오전 9시, 11시 15분 ▲ 문의: (808)5369-7244

동양선교교회 가을말씀 사영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 추모 6주기 기념 가을 말씀사영회를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차준희 교수(한세대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회 전 회장)이며 일정은 11일(금) 저녁 7시, 12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3일(주일) 예배 ▲ 문의: (323)466-1234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2022 가을말씀부흥회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2022 가을말씀부흥회가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회의 장사는 김성찬 목사(뉴욕지방 감리사 은퇴) ▲ 문의: (858)279-9191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창립 13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13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특별히 2부예배시간(오전 9시30분)에는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초청 음악예배로 드러진다. ▲ 문의: (323)373-0110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27차 해외성회 (227th Overseas Assembly)

1(화)	인천공항 KE703 09:55분 출발 - 일본 나리타 12:20분 도착
1(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회신학교 (학장 정스대만 목사)
2(수)	일본 나리타 갈멜산힐링센터 중국인특별성회 (원장 김태실 선교사 (90) 6535-9118
3(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숙인 목요정기전도집회 (준비위원장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회)
4(금)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사랑의교회 (Rev Stepan Jung)
5(토)	일본 나리타공항 KE 704 14:00 출발 - 인천공항 5(토) 16:50도착
7(월)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8(화)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느헤미야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9(수)~10(목) 저녁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0(목) 오전	(제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사면제 총연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유영목 목사 010-8898-9141)
10(목) 오후	서울행복교회(윤정규목사) 대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12(토) 오전	안산 성암교회 (이춘식 목사) 010-4939-0675
14(월)~16(수)	진안 임마누엘 부흥수영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부북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7(목)	서울 해방대 사령부교회 (대회장 박종철 목사) 010-2568-9006
18(금)	안양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010-3710-5608
21(월) 저녁	충주미스바총동교회 (문동철 목사 서순환 목사) 010-7136-7669
21(월) 오전	대부도 멜리 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22(화) 오후	서울대학교 ABKI 총동창회 문화행사 장소 서호미술관
23(수) 오후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Good TV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오영대 목사 총괄 부부장 김용호 목사) 010-7291-0291
28(월) 오후	서울신학교학장(김종환목사)월드기독교총연합회제9회경기총회 제3차준 비기도회 및 복지위원회 발대식(대표교인 피종진목사 대표총재 정도출목사, 이사장 정진희목사)010-7567-8291
28(월)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7220-0733
29(화) 오후	익산 글로빌센터 (원장 강은숙 목사) 010-3670-89930
(수) 오후	성남 은총교회 (노규연 목사) 010-3765-0658



尹 대통령 “꽃다운 청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5일 서울 백석대에서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드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로 하는 예배가 5일 서울 서초구 백석대 하은홀에서 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교회이태원참사위로예배준비위원회(대회장 류영모 오정현 이영훈 목사)가 준비한 위로예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애도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김태영 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보) 대표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시종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상임회장은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주님이 다 아시니 이 시간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달라”고 참석자를 대표해 기도했다.

설교는 김삼환(명성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전 회장이 ‘친구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국가와 사회, 기업도 참여해 정성을 다해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권했다. 이어 “국가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종교도 어려울 때 화해의 중재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위로의 시간은 오정현 한국교보 이사장 사회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인사말에서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교회와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모의 메시지는 고명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회장이 전했다.

고 목사는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슬프다”면서 “한국교회가 희생자

유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하고 유가족과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치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기재 한국교회총연합 전 회장과 김찬호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감독,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각각 기도했다.

이순창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에서는 “이태원에서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간구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돌아가신 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슨 이유로도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어야 이 참담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면서 “와우아 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숨 막히는 애통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유가족과 함께 울며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건고히 하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위로 예배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MZ세대, 추상적 구호 대신 직관적 언어로 복음 전해야 움직임이다”

예장통합 총회 주제 세미나

명분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는 그들이 사용하는 현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제 107회기 총회 주제 세미나(사진)를 열고 철회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MZ세대 이해’ ‘예배의 회복’ ‘전도 열정’ 등이 키워드로 제시됐다. 목회자선교사자녀캠프(MPKC)의 이다솔 대표는 “MZ세대가 ‘사할’과 ‘나할’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상식’이 없는 세대’로 일축해선 안 된다. 시대의 언어가 바뀐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월드컵도 교과서로 본 아이들에게 한국전쟁 폐허에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이들도 복음에 대한 감각함이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다음 세대 복음화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지를 부흥시키자’라는 추상적인 말에 뜻뜻하지 않던 아이들이 ‘선교지 배고픈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자’라고 하면 움직임이다. 예전엔 성도 한 분이 큰돈을 헌금해 선교지에 우물을 팠다면 아이들은 심심할만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며 “직관적인 언어로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자”라고 강조했다.

예배와 전도 등 신앙의 본질도 강조했다. 김운용 장신대 총장은 “예배는 그 형식과 표현이 늘 새롭고 감동적이어야 하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넜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에는 조금만 힘을 쓰고, 대부분의 힘은 한국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공감을 위해 써야 한다.”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은 탁 소장이 늘 한국교회에 외치는 당부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이다. 탁 소장은 “다음세대가 여름성경학교에서 접한 이단 교육이 평생 간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곧 수능이라 기도가 한창인데 사회로 나설 아이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이단 예방 교육에 나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탁 소장은 “인간의 실수와 한계를 막아달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과 성경·기도 모임을 갖는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성도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필요한 중간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경각심 갖는 게 이단 대처의 첫걸음”

“이단들, 다음세대 타깃 접근 중”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요 이단들은 한국교회보다 한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면·비대면 포교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면 수능을 앞둔 요즘에는 다음세대를 타깃으로 접근하면서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진단과 분석은 탁지원(55) 현대종교 소장으로부터 나왔다. 부친이 이어 29년 동안 이단 연구 및 관련사역을 펼쳐 온 그를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불안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대종교 사무실에 들어서면 이단 연구계의 선구자 고(故) 탁명환 소장의 사진과 그의 유품이 전시된 유리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탁명환 소장이 생전 현장을 누비며 사용하던 손전등 고스란히 문은 수첩과

사진기 등이다. 탁 소장은 “부친께선 절대 이 사역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역을 이어온 지도 벌써 1만5000여일, 30년 가까이 돼간다”고 말했다.

탁 소장은 얼마 전 저서 ‘탁 소장님! 여기가 이단인가? (현대종교사)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1994년 부친이 이단 신도의 습격으로 별세한 뒤 물려받은 사역의 지난 1막을 정리했다. 어느덧 부친이 작고한 나이에 이르자 말뚝 탁지원 목사를 중심으로 삼형제가 연구하고 기록해온 이단 자료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탁명환 소장이 치열하게 이단에 대처했던 분투의 기록도 생생하게 담았다.

일례로 이단 대처 사역과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는 아들에게 탁명환 소장은 이런 조언을



서울둘레길에 펼쳐진 성화, 탐방객을 맞다

서울씨티교회·중앙구, 용마·아차산 코스에 자넛 헌집사 작품 전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둘레길 용마·아차산 코스. 지난 4일 둘레길을 걷다보니 특별한 그림들을 마주했다(사진). 기독교 ‘성화’였다. 만주에 어울리는 풍부한 색감을 지닌 성화 넷 현(55·여) 집사다. 그는 대형 집회나 예배 현장 등에서 총 47점의 그림은 서울씨티

교회(조희서 목사)가 지난달 27일부터 경의중앙선 양원역과 중앙캠핑숲, 망우역사문화공원 등을 찾은 탐방객과 주민을 위해 전시한 것이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미국의 유명 프러페틱 아티스트인 자넛 현(55·여) 집사다. 그는 대형 집회나 예배 현장 등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즉석에서 그



후원자·수혜자 2500여명 참석... 컴패션 설립 70주년 예배

한국컴패션, 전 세계 14만명 어린이 후원...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대표 서정인)이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컴패션은 5일 서울 서초구 양재은누리교회에서 ‘당신으로부터, 컴패션’을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컴패션 후원자와 어린이 시절 컴패션에서 후원을 받았던 수혜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을 이어온 배우 차인표(사진)씨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덕에 빈민굴에 앉아 사랑받지 못하던 힘없는 아이들 수만명이 하루아침에 후원자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처럼 우리는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는 사랑의 계보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컴패션을 통해 17년간 아동

림으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헌 집사는 “주님께서 한국의 문화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향후 5년간 한국문화 사역에 올인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귀국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크리스천 문화가 교회 밖으로 넘어가서 세상에 아무런 장벽 없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 중랑구청(구청장 류경기)도 함께했다. 중랑구청장은 ‘그림이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가로수 정비와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주변 경관 미화 작업을 완료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과 성도들의 협조로 훌륭하고 멋진 작품으로 야외 미술관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컴패션은 1952년 6·25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도우려 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설립됐다. 그 후 41년간 10만명 넘는 한국 어린이를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길러낸 뒤 1993년 철수했다. 2003년 한국은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한국컴패션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만여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조정민 배이교회 목사는 “스완슨 목사님 한 명의 헌신이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를 살려냈듯이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며 “그 대상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든 다음세대든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을 따라 정의의 행하고 진리를 구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우크라이나·필리핀 아이 위한 ‘진짜’ 선물 준비한 기독교여사들

대한기독교여사회, 사마리안퍼스스코리아의 OCC 사역 동참

대한기독교여사회(김윤자 회장) 소속 30여명의 의사들이 5일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김성복 목사)에서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CC)’ 사역에 동참했다고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스코리아(SPK·대표 크리스 위크스)가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선물상자를 직접 포장하고, 선물을 받을 아이들에게 전달 ‘축복의 염서’도 손수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자 회장은 “선물상자를 받는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다”며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한 영혼

을 품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물상자 하나하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OCC는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직접 고른 선물이 담긴 상자를 현지 교회와 협력해 복음과 함께 전하는, 대규모 어린이 전도 사역 중 하나다. SPK에 따르면 지난해 11개국에서 모인 1100만개의 선물상자는 100여개국 교회 전도 집회에서 각 현지 아이들에게 전해졌으며, 이중 400만명이 SPK의 제자 양육과정을 수료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의 위기대응

며칠 전 서울의 이태원 골목길에서 156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있었다. 토요일에 열린 할로윈 축제를 즐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10만명이 넘어 평소보다 더 복잡하고 그냥 밀려다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국제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몇 달 전에 축구장에서 유사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류가스를 발사한 것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들이 압사한 사건이었다. 그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약간은 저개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치부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태원 사태는 요즘 여러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한국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국가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선교계에서도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난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위기마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선교사의 생애를 통해 만날 위기들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선교사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선교사의 정서적 변화로 나타나는 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선교사로의 부름과 헌신부터 시작되는 정서적 변화는 선교지 파송과 적응 기간을 통하여 심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스트레스와

지 않은 문화충격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문화충격을 잘 극복하도록 많은 훈련과 도움이 필요하다. 문화충격을 잘 이겨낸 사람과 오랫동안 벗어 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선교사역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선교사가 안식년이나 본국 사역을 가지게 될 때 재입국 충격을 만나게 되는 시기에는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시간인 디브리핑과 필요한 상담이나 코칭이 꼭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인 분야에서 준비된 선교관들이나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개별적인 발전의 기회들에 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익숙하여질 때는 교만과 태만, 단일함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가 오히려 선교를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위험한 때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무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와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성공적으로 되는 한국단체들이 드물다. 오히려 작은 단체들 가운데 선배, 후배의 끈끈한 정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인의 문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가 “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능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접근으로 선후배 간에 자연스러운 멘토, 멘티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는 융통성이 비교적 크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인들에 비하여 불확실성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임기응변에 강하다. 이 점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융통성과 적응력을 뛰어나게 하여 최근 한국의 발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기초가 약한 점이 나, 꾸준하지 못한 부분은 단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발달하여 선교사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주 출신의 선교사들은 그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의료기관들이 잘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국적을 뛰어넘는 의료협력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는 선교사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한국기독교인들이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 상태를 돌봐주고, 현지인들의 의료관련 질문에도 응대하는 카톡방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고무되는 일이다. 이런 전문영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조직적인 운영이 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긴급의료서비스를 위한 에어앰블란스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구선교단체나 국제기구들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팬

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단체지원이 이루어져 에어앰블란스를 포함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렵고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선교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고나 전염이나 비상상황으로 인한 위기이다. 한국 교회는 아프카니스탄에서 두 사람의 단기 봉사팀을 잃고 심한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미디어를 통해 온 나라에 반기독교 정서를 가장 크게 하였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큰일이었다. 단기 의료봉사를 하러 가던 팀을 납치하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를 위해 찾아가던 한국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낙인 찍혀 교회는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 이것을 통해 교회와 선교계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먼저는 이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전문인력을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교계에서는 이 사태 이후 한국위기관리재단을 만들고 선교계와 교계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주교회는 지역적으로 넓고 미국이라는 문화적 특성이 개인주의적인 연유로 인하여 한 곳에 집중하여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센터나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몇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온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나서지만 정든 교회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결단의 시간들은 큰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감격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도파하는 것 같은 죄송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교비를 모금해야 하는 일은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이에 적합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안내와 선교비 모금과 관련한 바른 재정관 정립은 선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선교지에 도착하면서부터 은퇴하는 기간 동안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이다. 선교사들은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도착하고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문화충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때로는 2년여에 걸쳐 쉽

구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잘 지나지 못하면 교만하고 아집이 강한 독불장군 선교사를 만들기도 하고, 아예 선교를 포기하게되는 사건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책무성을 확실하게 하고 도울 수 있는 바른 선교 단체들이다. 선교 단체들은 선교사 개인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이나 권역의 대표들을 통하여 바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 역시 중년의 위기 같은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 때에 좋은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산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선배나 단체가 필요하고, 선교지역과 삶을 돌아보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잘 조직화되지 않는다. 여러 단체들에서 이런

점으로 작용 한다. 건강에 관련한 위기이다. 일반적인 선교사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질병에 노출된 선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 풍토병 등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얻게 되는 질병만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헌신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기타 질병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을 가지게 된 것인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못한다. 그 하더라도 선교사가 만일 본국에 살았다면 더욱 쉽게 발견되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도 더 심화되어 고생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그렇기에 건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데믹 기간동안 한국선교사들도 현지에서 긴급한 상황에 15번에 걸쳐 에어앰블란스를 동원하여 한국으로 후송하였다. 이런 일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심시일반으로 감당하여 이럴 경우에도 있고, 긴급후송으로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에어앰블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한국단체들의 경우 미리 보험을 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선교비 모금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아예 그런 비용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적 대책을 위하여 선교 단체들이 합하여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하여 단체여행자보험을 들고 있지만 일반적인 작은 사고들은 포함하지 못한 에어앰블란스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

dr.yongcho@gmail.com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② 예수님 고향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나사렛을 떠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마2:22-23, 요 19:19) 혹은 나사렛 예수(행26:9)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동서,북 세방향은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 면은 열린 절벽입니다. 나사렛은 분지의 언덕에 자리잡은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미미한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특별한 것이 없는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이렇게 초라한 것은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이전에는 완전한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구약에는 단 한 군데에도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이하 16절 까지는 스블론(Zebulon)지파 사람들이 이 지방에 정착하는 과정이 기술되어있고, 이 기록에 12개의 읍촌(邑村)들과 6개의 마을 이름들이 나오지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도 나

사렛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갈릴리 지방의 63개 지역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나사렛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느 랍비들의 문헌에도 나사렛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님 생애와 관련된 도시들을 언급하지만 나사렛이란 지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나사렛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 나사렛은 철저히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시절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산간 지방에 속하며 산간의 분지로 해발 약 375m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은 가파른 언덕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산간 지방을 거쳐 북쪽으로 약 134Km 지점, 텔 아비브에서 동북쪽으로 약 105Km, 하이파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35Km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승천 이후 300년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AD324-337) 황제가 나사렛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황제에 의해 성지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AD700년경 나사렛은 이

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 받은(눅1:26-38)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교회는 천주교 성당입니다. 세워진 첫 교회는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고, 십자군이 다시 대 규모의 교회를 지었지만 이슬람들에 의해 또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17세기에 3번째 교회가 건축되었고 현재는 아랍의 유명한 건축가 지오바니 무지오(Giovanni Muzio)의 설계로 지어 1969년에 봉헌된 5번째 교회입니다.

또 같은 울타리 안에 수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는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재는 나사렛은 아랍계 그리스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아랍계(系) 기독교(천주교, 기독교, 정교회)인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수도원이 나 성당 건물이 눈에 띄고, 길거리에는 히잡을 쓴 무슬림보다 자유복장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아랍 사람이 많습니다. 나사렛은 공생애 이전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모들이 정혼했고 예수님의 임태를 고지 받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수태고

무명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도시 나사렛

슬람의 정복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대부분의 교회들과 수도원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십자군 운동 기간에 잠시 해방되었으나 1200년 경 맘루크시대(노예 전사로 이루어진 군대)에 함락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후 터키 지배하에 있었으며 약 400년간 잊혀졌습니다. 1918년 영국이 나사렛을 함락하였고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

지를 받은 요셉을 기념하는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수태고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성요셉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성요셉 교회는 요셉이 목수 일을 했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이 근처에 마리아의 우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중요한 성지순례 장소입니다.

지금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 교회가 있습니다. 수차례 파괴되었다가 복구된 수태고지 교회는 나사렛의 명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태고지 교회'안에 예수님 집안이 거주했던 동굴식 집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은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소실, 시 그리고 뮤지컬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역사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지역회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삼상 9:1~4) 찬 30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할 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너를 찾으러 올 것이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

닐 때, 함께 있던 사환이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의 종의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가 보시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몸이 나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삼상 10:8) 찬 214장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질 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후에 곧장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질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그의 수

부가 '사무엘이 너에게 했던 말을 알려다오'라고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수 진실한 사랑을 합시다 (삼상 11:1~11) 찬 220장

암몬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아베스에 진을 쳤습니다. 나하스는 아베스 사람들과 화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를 알고 군사를 모아 암몬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길르앗 아베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면전을 벌인 이유는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

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일 4:2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 100% 신뢰 (삼상 12:12) 찬 413장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중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 너희는 또 인간 왕을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원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주셨으니, 이제 너희와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금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삼상 13:8~14) 찬 549장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전쟁 전에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무엘이 약속한 질 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은 제사 드린 사울을 '망령된 행동'(삼상 13:13)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드린 제사의 일차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

니었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삼상 13:11) 때문에 '부득이하여 드린 제사'(삼상 13:12)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의 수단'이 됩니다.

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삽시다 (삼상 14:31~37) 찬 315장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억지로 금식을 시켰습니다. (삼상 14:24)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파짜로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 짐승을 잡아먹되 피 채로 먹지 말라'고 말하며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

된 전쟁이 아닙니다. 사울이 준비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임하면서 사울은 온갖 종교 행위를 총동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교 행위'만 남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삽시다.

교회음악 이야기(23)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윌리엄 쿠퍼와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그 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곳을 씻어 없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 또한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Cleansing Fountain)" 안에서 찬송작가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 1731-1800)가 이 기독교적 구원론, 그리고 이에 따른 복음의 당위성을 생생한 묘사를 통해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석방된 후 그는 몰리 언윈(Morley Unwin)이라는 은퇴한 목사와 그의 아내 메리(Merry Unwin)와 함께 헌팅턴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들과 함께 올니(Olney)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찬송가 "Amazing Grace" 작가인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을 만났고 그의 목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윌리엄에게 당시 "Olney Hymns"라고 불리는 그가 편찬하고 있던 찬송가집에 찬송시를 기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때 많은 영감을 받고 있던 윌리엄은 "샘물과 같은 보혈 Cleansing Fountain"과 "주 하나님 크신 능력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를 포함한 68개의 찬송시를 써서 그곳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은 존의 지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 올니(Olney)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9세기 영국의 고전문학자이자 찬송작가로서 초기 낭만주의시대 시인들 중 최고로 여겨집니다. 그런 그의 69년 생애를 보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역설의 찬양시로 남긴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 존 쿠퍼가 사망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몰리 언윈이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에게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로 예정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도록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그는 존 뉴턴의 집에 머물면서 헌신적인 언윈 부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은 윌리엄은 "The Diverting History of John Gilpin"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첫 번째 시집은 1782년에 출판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계속 시를 쓰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는 초기 낭만주의 시인들 중 최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1731년 영국 하트포드셔(Hertfordshire)의 버크햄스테드(Berkhamsted)에서 존 쿠퍼와 앤 쿠퍼(John & Ann Cowper)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 베드로 교회의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윌리엄이 여섯 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앤은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은 윌리엄에게 슬픈 영향을 미쳤고, 그는 평생동안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마크야테(Markyate)의 기독교에 처음 보내졌지만 잦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교육을 받은 후, 1754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상원에서 저널의 서기직을 제안받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공황장애(Panic Disorder)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그는 세번이나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 알반(St. Alban)의 요양원으로 보내져 기독교 치료사인 코튼 박사(Dr. Cotton)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롬 3:23-25을 통해 그리스도

이후 그는 그를 지극히 돌보아 주던 언윈 부인이 사망하게 되자 다시 한 번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그를 몰아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마지막 시인 "Castaway"라는 또 다른 시를 그가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799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800년 봄, 그는 수종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종은 스테판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그를 본 한 사람은 그 얼굴의 평온함과 침착함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가득 차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잭슨빌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남아시아 N국
- ▲ 종족명
B족
- ▲ 인구
404,600 명
- ▲ 종족의 종교
전통 종교
(조상 숭배, 샤머니즘)
- ▲ 종족의 교회 상황
미전도 종족
-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선교사가 종족 연구를 위해 마을 여행을 하던 중 환대해 주었던 가정의 할머니이시다.
- ▲ 기도제목
1.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 B족 마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2. B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성경 보급이 필요한 모든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3. 라디오 방송 사역이 지

속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4. 목회자 리더 훈련 센터에서 훈련받은 졸업생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배운대로 잘 사역하고 더 많은 훈련생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교회음악 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윌리엄 쿠퍼의 69년 삶의 여정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 바른 복음의 흔적을 뚜렷이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 (C. S. Lewis, 1898-1963) 가 쓴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야기한 "고통은 영웅을 만들어 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처럼 윌리엄 쿠퍼의 고난의 삶이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이 쓴 찬송시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쓴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



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가 남긴 말 중 "Knowledge is proud that it knows so much; Wisdom is humble that it knows no more 지식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고, 지혜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

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통의가 됩니다.

복음에 관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기보다 복음의 결정체가 되는 그리스도 생명의 피를 통한 임마누엘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겸손한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iyoon@wmu.edu

선교 편지 캄보디아

1. 예배사역

어린이 예배
요즘과 같은 우기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스텝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예배 시작전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일단 교회를 나온 뒤에는 비가 오더라도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배 시작 전에 비가 오면, 아이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낙심되기도 합니다. 9월 셋째 주 주일 전날 밤에 내내 비가 내리고 주일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주일 아침에 차를 몰아 교회를 가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 아이들 예배참석이 어렵겠구나, 그래도 낙심 말고 스텝들과 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텝들과 찬양팀에게 낙심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한 곡 한 곡씩 부르고 있는데, 비를 맞아 머리가 빗물에 젖은 채로 예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더니, 찬양을 마칠 때 즈음에는 30명 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지에서 예배자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선교지의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 힘을 얻는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였습니다.

청소년 예배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여, 코로나 중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참석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기도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려지면 교육을 거쳐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례식 이후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 방과후 학교 사역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전도사역으로 방과후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스텝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도록 방과후 학교 전에 한국어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무더위 속에 아침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쳐서 거의 녹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때 열심히 배워야해'하고 억박지르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스텝들이 집중을 잘할 뿐 아니라 하루 중에서 함께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점점 잘 읽게 되고, 발음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3. 지붕 설치 작업

지붕 설치 작업이 위의 사진과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 년도에 유치원을 개원하고 우기철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지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복도 타일이 얼음 빙판처럼 미끄러워져서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컸고 타일 바닥과 나무로 된 문에 지속적인 해를 주었습니다. 또,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는 야외활동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도 햇빛을 피하려 주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고 비가 올 때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설치 작업 이후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늘에서 간식도 먹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스텝들과 저희 모두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붕설치를 허락해 주신 권장로교회 김성국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벨앨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9:26(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kangshan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기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연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D.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기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r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령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website: www.bic.org / www.bi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실비지 사랑교회 (Sea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연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지 리저널 OutHouse 3 Lobby (주일) OutHouse 3 room (1차)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를 위한 선교사역원)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주요) 2. 교향 할산도 여성(주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2)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사랑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0 주일 학교: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n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466-9259 www.socalsamsungchurcho.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2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새 벽: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56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익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영어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ckc.kim@bibl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인/터/뷰

최병철 교수 (숙명여대 명예교수)

하나님의 은혜를 음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치유 음악 사역

OC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신용)가 연합으로 주최한 '성경적 음악치유사역 세미나'가 오는 22일(화) 저녁 7시 플러튼의 St Paul Lutheran Church(111 W Las Palmas Dr, Fullerton)에서 개최된다. 본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최병철 교수를 통해 성경적 음악치유사역에 대해 들어 보았다.

"어디까지가 성경에 기반을 둔 음악사역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가를 고민해 왔다"고 입을 여는 최병철 교수, 그는 "교회음악도 성경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음악은 언제나 동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기초해 왔기에 규범적으로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음악의 타락과 해악의 사건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회음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치유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음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치유음악 사역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치유사역에 대해 "성경적 치유음악사역은 친구 약성경에 있는 음악의 사용을 오늘날 치유목회사역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교회음악에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를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의 '음악현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이렇듯 중요한 음악을 알고 음악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일이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교회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배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 전반에 음악을 구

미치는 음악을 이해하고 치유 음악사역에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21세기 교회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세미나를 통한 목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한 목적이 있기에 금번 세미나를 통해 인간의 행동인 음악을 강조하고, 음악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음악으로 개인과 집단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음악치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의 음악과 기능적 음악사용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현대교회의 치유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며 그 주제들은 △음악의 이해와 음악의 영향력 그리고 음

사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치유음악사역의 실제로 삼았다고 말한다.

최교수는 1986년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음악치료를 공부하고 Norwalk의 메트로폴리탄주립병원에서 음악치료사로 4년간 근무했다.

1996년에 캔자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997년에 국내 최초의 음악치료대학원을 숙명여대에 설립했다. 이후 숙명여대의 교수, 대학원장, 세계음악치료연맹회장, 한국음악치료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성경의 음악과 음악치료"라는 책을 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출간했다. 본서를 통해 성경에 기



최병철 교수

최교수는 현재 남가주 플러튼에 거주하며 좋은마음교회

하고 싶다"고 비전을 말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다. 세

"성경적 치유음악사역은 친구약성경에 있는 음악의 사용을 오늘날 치유목회사역에 적용하는 것"

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에 개최되는 본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악치료에 대한 이해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기능적 사용 △성경으로 보는 잘못된 음악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교회

록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회음악의 방향과 성경적 치유음악사역의 실재를 제시했다.

를 삼기고 있다. 앞으로 그는 "음악으로 교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풍성한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

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913) 283-3173 (최병철 교수)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 한인교회 교인 인식 조사 결과 보고

CTS 뉴욕방송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한인교회 성도들(뉴욕, LA, 애틀랜타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3일 ~ 10월 7일(14일간) 77개 교회에서 1580명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기독교 통계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한국 교회보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출석교회에 대해 보다 충성적이며 소속감이 강하다.
2. 특히 코로나 기간 중 한국 교회와 달리 신앙이 더 강해지는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3. 연령별로 한국은 3040세대 교회 허리세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반해, 미국 한인교회는 3040세대가 약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본인교회 이외 타교회 온라인 접속은 한국보다 더

- 활발해 Floating 크리스천 성향을 보이고 있다.
5. 주중예배/새벽기도는 본인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인식상에서 절반가량이 현장예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참여율이 낮더라도 교회 예배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영적 욕구는 한국 교인보다 더 강하다. 이에 대한 교회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7. 한국교인보다 가정예배 비율은 약하나, 성경공부 비율은 높다. 가정예배 비율을 높일 필

- 요가 있다.
8.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은 학교 교인보다 더 수용적이며, 온라인으로도 영적 경험을 원하고 있다.
9. 교회 사역 프로그램의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는 39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0. 한인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 공동체성/교제/소그룹 강화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교회의 공적역할(공공성)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보

- 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11. 특히 3040세대를 붙들기 위해 교회학교 교육 시스템 강화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는 미주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12. 이민교회 목사의 조건은 '설교력'과 '설교력'이다. (한국과 다르지 않음)

13. 한국은 이중적 목회에 대해 목회자, 성도 모두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아직 한인 교회는 찬성이 높기는 하지만 반대비율이 상당수 존재한다.
14. 미국은 한국보다 소그룹이 보다 활성화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식사'가 매우 중요한 소그룹의 중요 요인으로

- 작용하고 있다.
 15. 교회 예배/사역 회복 및 교인들의 신앙 활동이 3개 지역 중 애틀랜타지역이 가장 우수하며, 뉴욕과 LA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 (주)지앤컴리서치 목회데이터연구소 >



Candidacy Qualification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Exam Subjects

-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Isaiah 52:13 - 53:12
 (2) NT Exegesis Text : Hebrews 10:19 - 25
 (3) Thesis Topic : Write about the Reformed Church in the Post-Pandemic era - 'Metaverse and the Lord's Supper'
 (4) Sermon Text : O.T- Amos 8:11 - 14, N.T- 2 Timothy 4:1 - 5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7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3-26, 2023).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Dates : May 22(Mon)~23(Tue), 2023
- Place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Vice Moderator 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3.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22-23, 2023) through Rev. David H. Park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H. Park
Address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U.S.A
Cell : (917) 254-0887 E-mail : heepark91@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